

FENDI
TIMEPIECES



Punctually
Unpredictable

FENDI MY WAY

펜디 워치는 전국 유명 백화점 내 갤러리콜라매장 및 펜디 부티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80 3284 1300 FENDI.COM/TIMEPIECES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14 vol.118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BURBERRY
CHILDREN

BURBERRY.COM

**MONT
BLANC**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and Hugh Jackman

Crafted for New Heights

Featuring one of the most delicate complications in fine watchmaking, the Montblanc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will require no adjustments until the year 2100, so long as its automatic Caliber MB 29.15 is kept sufficiently wound. Housed in a 39 mm 18K red gold case, this refined timepiece truly promises to be a lifetime companion. Visit Montblanc.com

Meisterstück 90 Years Collection



34

30



TIFFANY & CO.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1백77년 역사의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Tiffany & Co.)의 광고 비주얼이다. 2014년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로맨틱 특한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키 컬렉션은 물론 모던 아이콘 티파니 T 컬렉션, 셀러브레이션 링까지, 블루 박스에 담긴 아름다운 주얼리를 만나보자. 문의 02-547-9488



48



10

- 14 **달콤함의 매혹, 일상의 작은 사치** 요즘 한국에서는 수제 과자나 케이크 같은 프리미엄 디저트의 인기가 눈에 띄는 정도로 높다.
- 16 **AUDACIOUS CREATIONS** 보석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하이 주얼리 컬렉션.
- 18 **THE LOOK FOR HER** 그녀의 까다로운 취향을 충족시킬 홀리데이 기프트 컬렉션. **THE LOOK FOR HIM** 올 연말엔 그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까? **THE WATCH** 그 어떤 순간에도 곁을 지켜 줄 믿음직스러운 클래식 워치. **THE JEWELRY** 작은 반짝임이 만드는 행복한 속삭임, 영원히 기억될 주얼리 기프트 컬렉션. **SPECIAL PICKS**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스페셜 기프트.
- 30 **WATCHES & WONDERS 2014** 가장 인상적인 워치를 소개하는 두 번째 워치스 앤드 원더스 리포트.
- 34 **아트워크로 재탄생한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미래** 자동차에서 영감을 얻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자.
- 36 **SMOOTH AS SATIN** 로션과 크림, 오일 에 이르기까지 자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울거울을 위한 보다 트리트먼트.
- 40 **UNIQUE PASSION** 나무, 대리석, 옥수수, 깃털, 운석, 패션 하우스가 커스텀 주얼리에 도입하는 소재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 42 **HOLIDAY CHIC** 특유의 모던하고 우아한 실루엣과 섬세한 디테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링방 컬렉션.
- 44 **A ROSE, REBORN** 에르메네체질도 재-와 박찬욱 감독이 함께 제작한 단편영화 (a rose, reborn)의 완결편이 공개됐다.
- 46 **2014 ART + FILM GALA** LACMA의 네 번째 2014 아트+필름 갈라(ART+FILM GALA) 다녀.
- 48 **BEYOND THE TIME** 여배우 이영애가 운현궁에서 한국사채널트러스트와 함께 보낸 따사로운 오후.
- 58 **THE VALUE OF RARITY** 그라프(Graph)가 최근 고혹적인 보석과 시계 컬렉션을 공개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 59 **THE NEW MODERN BOUTIQUE** 마스터 워치메이커 브랜드 파르미지아니 플라미에의 새로운 부티크가 오픈했다.
- 60 **HIS SCENT** 존 바버투스의 모방할 수 없는 향의 세계.
- 61 **BRITISH INSPIRATION** 가장 영국적인 패션 브랜드 바버리의 혁신적인 콘셉트 스토어, '바버리 뷰티 박스'가 아시아 첫 번째 매장을 서울 코엑스홀에 오픈했다.
- 62 **ICONS CONNECTED** 천재 디자이너 로저 비비에의 발자취를 재조명한 (로저 비비에-아이콘스 커넥티드) 전시회. **TROUSER CHIC** 조르조 아르마니가 구조적인 힘과 부드러운 실루엣, 화석빛으로 물든 트라우저 수트로 모던 테일러링의 정수를 보여준다.
- 63 **PERFECT GIFT**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뮤즈인 배우 한예슬이 제안하는 '스와로브스키 홀리데이 컬렉션을 눈여겨보자.
- 64 **HERE FOR GOOD** '허어 포 굿(Here for Good)'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자선 관리 서비스.
- 65 **EDITOR'S PICK** 2014년을 마무리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선택.

Style 조선일보

Issue.118 December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채우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2014, Six Iconoclasts, One Icon: CHRISTIAN LOUBOUTIN, CINDY SHERMAN, FRANK GEHRY, KARL LAGERFELD, MARC NEWSON and REI KAWAKUBO take inspiration from the iconic LOUIS VUITTON Monogram.

LOUIS VUITTON

Jewel DELICATE TOUCH

골드를 세공하는 기법만으로도 놀라운 판타지가 펼쳐진다. 섬세한 손길이 빛나는 골드 주얼리 컬렉션.

7순데 유행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려 골드를 다양한 형태로 세공한 쿼트로 레지던트 에디션 링 1천원부터 **부채**엔, 동백꽃 모티브를 오픈워크 기법으로 세공한 카멜리아아주리 링 9백만원대 **사철 화인 주얼리**, 나뭇잎을 섬세하게 묘사한 빌리 빌리 팜 펜던트 4백만원대 **타피나**, 2월을 손가락에 꼬아 줄린 듯 유려한 라인에 풀을 링 7백만원대 **사철 화인 주얼리**, 꽃 모티브를 세심하게 공 모양으로 완성한 호턴시아 펜던트 3백만원대 **소페**, 4개의 꽃잎이 반복하여 손가락을 감싸는 에프울 링 1백40만원대 **루시예**, 밤의 비늘과 마리를 다채롭게 묘사한 세행 보행 원헤드 라지 링 3천만원대 **부채**엔, 에터 **메이진**



Beauty HOLIDAY BEAUTY

뷰티 마니아들의 귀를 풍긋하게 할 홀리데이 컬렉션 소식. 눈 깜짝할 사이에 품질 향진을 이어가는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을 사수하려면 지금부터 발 빠르게 개척해야 할 것. 오직 올해에만 만날 수 있는 매혹적인 뷰티 아이템을 소개한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입증받은 리본 패키지로 변신한 **엘랑 메테오리트 에프탈 라이트 리빙 링 필 파우더**는 특별한 저녁, 조명 아래에서 화려한 피부 톤을 연출할 수 있도록 라이트 레드와 핑크 골드 파우더 구슬을 새롭게 추가했다. 강력한 레디언스 효과로 화사하게 반짝이는 피부 광채를 느낄 수 있다(25g 8만원대). **디올 디오리퍼 골드 스크 린스** 탁은 제품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 한 면에는 선명한 컬러가, 다른 한 면에는 미세한 골드 메탈릭 필이 담겨 있어 화려하게 대조되는 강렬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입술이 반짝이고 도톰해 보이는 플럼핑 효과가 탁월하다(3.5g 4만7천원). 골드 레오파드 프린트기 수놓인 감각적인 블랙 가죽 케이스의 정제는 바로 **입생 로망 멀티 팔레트 클렉터 와일드 에디션**. 아름다운 패키지만큼이나 컬러감이 예쁜 아이·치크·립 제품의 팔레트로 구성되어 있다(10g 13만원대). 홀리데이 룩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디올 5 팔레트** 아이셔도 팔레트는 고혹적인 플럼, 핑크, 골드 컬러로 구성해 깊고 그윽한 홀리데이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6g 9만1천원). 57지를 래쉬한 컬러가 돋보이는 아이셔도 팔레트, **사벨 레노 오브르 드 사벨 와이드 드 뉴는** 활동도가 높은 은은한 컬러로 구성된 다양한 아이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다. 화려한 실버 화이트와 앤더크 골드로 눈매를 밝히고, 차갑거나 따뜻한 톤을 더해 아름다운 눈매를 연출해줄 것(7.5g 8만9천원). 에터 **권유진**

Fashion WINTER SPACE

한 해가 저무는 이때, 새롭게 단장한 다섯 곳의 쇼핑 스푼과 함께 추위로 움그린 어깨를 활짝 펴고 밖으로 나갈 것. 먼저 창당동 1세대 멀티숍으로 근원하던 두 곳의 기념비적인 장소가 동시에 리뉴얼했다. 분다샵 창당은 세계적인 건축가 피터 마리노의 지휘 아래 모던 럭셔리 스페셜티 스토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출시표를 던졌다. 패션, 문화, 예술, 음식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세련된 취향이 몸에 밴 듯 특별한 경험을 준다. 쿤의 창당점을 성공적으로 리뉴얼 오픈한 데 이어 쿤의 동생 격인 쿤 위드 어 뷰드 쿤 신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기존의 개성 있는 셀렉션은 그대로 유지하되, 패션과 문화, 라이프스타일 등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 이자벨 미랑의 남편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제롬 드 레이피스는 이제 여전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만큼 국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했다. 특유의 향수와 로고, 금속 장식의 스웨이브와 가죽, 데님 등 가장 현대적인 소재에 녹아든 실용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 고급스러운 색상과 소재로 우아한 이틀리 아 감성을 선보인 브루넬로 쿠치넬리 역시 창당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남성과 여성 컬렉션을 비롯해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아이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까지 보다 풍부한 컬렉션이 기다리고 있다. 남성복으로 더 잘 알려진 톰 브라운의 여성 단독 매장은 압구정동 갤러리아에 동지를 틀었다. 개성 충만한 톰 브라운의 여성 단독 스토어가 세계 최초로 오픈한 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의 패션 안목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아닐까. 에터 **이예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iving 겨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프리미엄 스카피의 세계

한국 시장에서 위세등등하던 위스키의 기운이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술머시 미소 짓는 종족이 있다. 바로 싱글 몰트위스키다. 글렌피딕(Glenfiddich)은 최근 아메리칸 오크 버번 캐스크에서 26년 동안 숙성시켰다는 프리미엄 제품을 최근 선보였다. '글렌피딕 엑셀런스 26년'은 버번 캐스크의 특장인 오크 향과 비닐과 맛과 더불어 오랜 시간 스코틀랜드 스페이스이드 증류소에서 무르익은 꽃과 과일 향까지 머금은 덕에 풍미가 독특하다. 흔히 '스모키'하다고 표현하는 피트 향이 강해 열렬한 인팬을 거느린 옥토모어의 신제품 옥토모어 6, 30일과 벨리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상에 위치한 브루리디 증류소에서 생산한 한정 수량 제품으로, 최강의 피트 수치를 자랑한다. 기존 제품의 수치가 167PPM인 데 비해 이 제품은 무려 258PPM이다. 또 다이아모어에서는 젊은 층(28~35세)을 겨냥한 싱글 그레이니 스카피위스키 헤이그 클럽(Haig Club)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맥아 대신 호밀 등 곡물을 원재료로 한 이 위스키는 목 넘김이 부드럽고 각 테일로 혼합하기도 적당하다.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기발 과장에도 참여했고, 국내 시장에서는 배우 이서진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 화이트 스페이퍼 중 앤디 위홀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병 위에 수놓아 소장용으로 간직하고픈 마음이 절로 들게 하는 앤디 위홀 에디션도 인상적이다. 원작인 애플루트 위홀이 1985년에 나왔으니 무려 30년 만에 애플루트 보드카 제품으로 선보이는 셈인데, 전 세계적으로 단 4백만 병만 판매된다고 한다. 애플루트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미술 작품을 교환할 수 있는 행사인 '아트 익스체인지'(www.absolut.com/artexchange)를 진행한다. 에터 **고성연**



Exhibition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많은 것들 중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인생을 대하는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자세다. 그런 그녀의 사진에서도 알 수 있다." 진정한 것은 사진작가인 린다 매카트니의 딸이자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스티븐 매카트니의 화상 일부를 발제한 것이다. 비틀스 멤버 폴 매카트니의 아내이자 이전에 동시대 최고의 사진작가로 활약한 그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이 서울 통의동 대림미술관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 열린다. 이 전시에는 지미 헨드릭스, 에릭 클랩턴, 도어즈, 롤링 스톤스 같은 당대 최고의 음악 아이콘과 자신의 남편, 아이들, 다시 말해 매카트니 가족의 모습을 담아낸 2백여 점의 사진을 볼 수 있다. 결코 인위적인 포즈를 취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그녀의 생생한 일상적인 순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이 절로 미소 짓게 한다. 또 그녀와 친분이 있던 이들이 찍은 린다 자신의 초상도 인상적이다. 뉴욕 출신인 그녀는 비틀스 사진을 찍으려다 우연히 만난 폴 매카트니와 1969년 결혼했고, 1998년 매카트니에 유망한 폴의 농장에서 우방인으로 세상을 떠났다. 폴 매카트니는 물론이요 그녀의 딸과 아이들 직접 기록에 참여했다는 이번 전시는 사진작가만이 아니라 사회 활동가, 뮤지션, 그리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참으로 열정적으로 살다 간 그녀의 다양한 면모를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기회다. 홈페이지 www.daelimuseum.org 에터 **고성연**

May, Paul, and Heather, Scotland © 1970 Paul McCartney Photographer Linda McCartney



THE BRIDAL COLLECTION

G R A F F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for her
Selection

연말 이브닝 룩만큼은 평소에도 시도하지 못했던 반짝이는 스팅글과 주얼 장식으로 화려하고 과감하게 연출해볼 것.
photographed by hong seung eun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그린 컬러 스팅글 스트랩 할거리 미장품지 비비에.

루빈도 꽃을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아이핀 할거리 미장품지 그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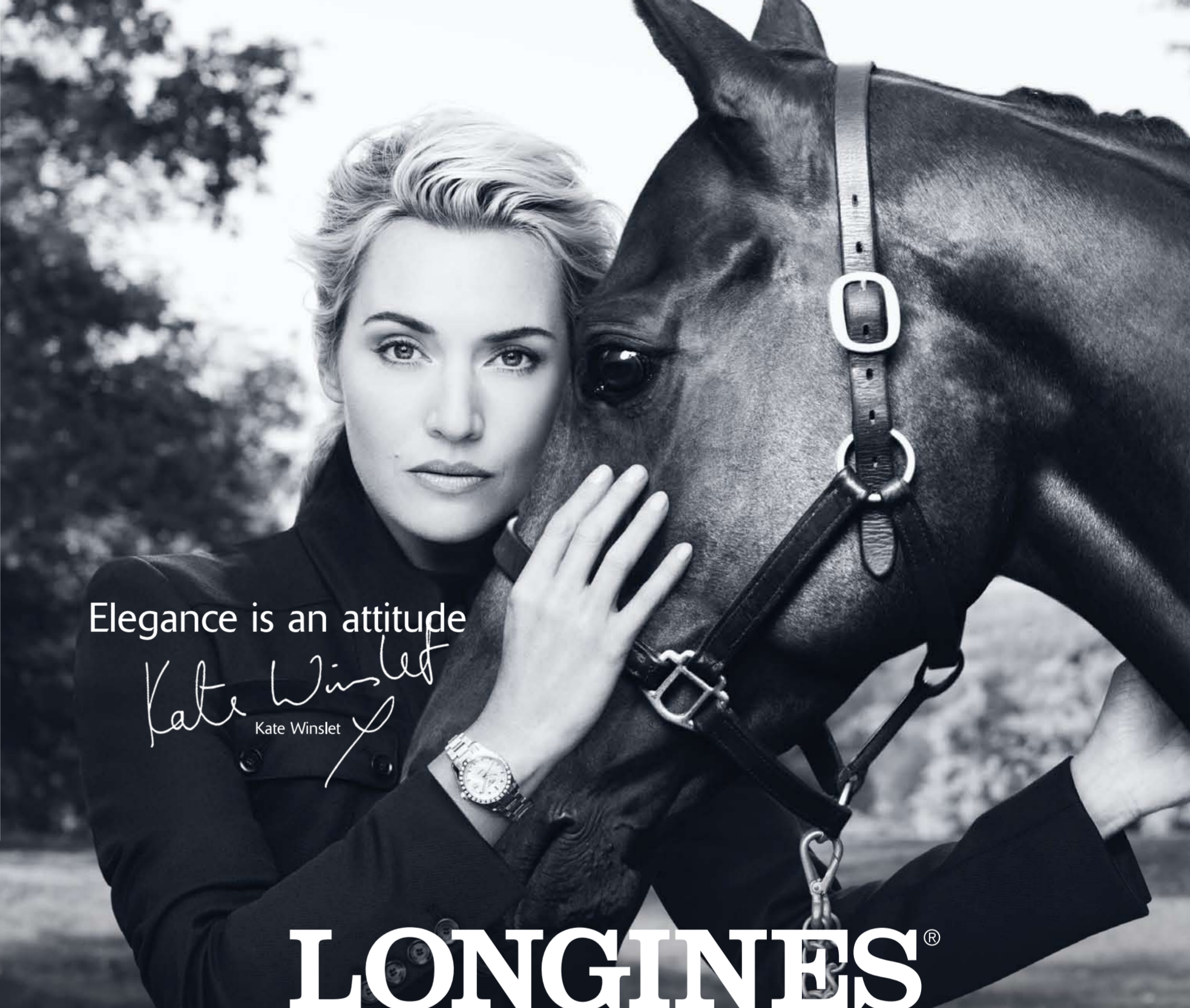
블루 주얼 장식이 눈에 띄는 레드 선글라스 40만원대 프리다 by 루소티카 코리아.

귀여운 트위티 캐릭터가 재치 있는 스팅글을 만들어낸 3백만원 할부 품목.

개성 있는 디자인의 스팅글 모자 73만5천원 매뉴얼로라 by 톰 그레이하운드.

10 포르스 코모 02-3018-1010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루소티카 코리아 02-501-4436
필립 플레인 02-546-9132
토즈 02-3438-6008
스외로브스키 1661-9060
해리 윈스턴 02-540-1356
그라프 02-2256-6810
구찌 1577-1921
랑방 02-6905-3582
무이 02-3446-8074
톰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MCM 02-540-1404

크리스탈 장식이 화려한 스톱 에젤라인 컬렉션 핑크 백팩. 32.5x27cm, 3백만원대 MCM.



Elegance is an attitude
Kate Winslet
Kate Winslet

LONGINES®



Conquest Classic

리뉴얼 오픈 신세계백화점 본점 분관 지하 1층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등포 경기 인천 센텀시티 의정부 총정 AK플라자 수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롯데면세점 본점 월드타워 코엑스 부산 제주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 인천공항 워커힐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동화면세점



레드 체크 패턴의 세련
가려 미장 바버리 웨스트우드.

올리브 스타드 장식을 더한 송이 자가죽 지갑
가격 미장 크리스찬 루부탱 by 분다삼.

유려한 골드 컬러의 톤리퍼
1백99만원 노르웨이.

리치몬드 패턴의 가죽
보헤미안 디자인 가방.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감각적인 유리 캔들. 단연코 샹디르프 by 비가.

다각도로 카팅한 메탈
장식이 유니크한 헤드셋
28만9천원 노브프렌즈.

사탕색의 유광형
아사테 이색형 에티크루앙.

카우치 패브릭 소재를 고급 컬러
스케치 패턴으로 디자인한 루비 비통.

로드스터 워치
크라운에서 영감을
받은 카프스 링크
9만9천원 카르띠에.

앞코의 메탈 장식이 돋보이는
앵글 부츠 2백만원대 루비 비통.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 스테이플 우산 가격 미장 바버리.

선명한 블루 컬러의 체인
지갑 가격 미장 알렉산더
맥퀸 by 분다삼.

세련된 체크 패턴의
재킷 1백99만원
에트르.

for him Selection

파티 룩을 연출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스타일에 포인트가 될 개성 있는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준비 끝.
photographed by kim do hyun

레이싱 헤미티지를
담은 과감하고 강렬한
디자인의 모노
컬러버 6 홀 블랙
워치 4백30만원대
태그호이어.

샌드 블라인드 패턴이
옅스피움 비 사이즈의
토트백 40x54cm,
1백40만원 바버리.

- 바버리 웨스트우드 02-3438-6292
- 분다삼 02-3444-3300
- 비이커 02-543-1270
- 생로랑 02-6905-3924
- 자철시 02-517-7560
- 노브프렌즈 02-3440-4544
- 카르띠에 1566-7277
- 에트르 02-511-2573
- 바버리 02-3485-6536
- 루비 비통 02-3432-1854
- 태그호이어 02-776-9018

emporioarmaniswissmade.com - ARS 3042-



EMPORIO  ARMANI
SWISS MADE



달콤함의 매혹, 일상의 작은 사치

달콤한 디저트 자체가 럭셔리였던 로마시대에는 얇게 구운 과자가 있었는데, '즐거기(placenda est)'라는 어원을 딴 '플라젠타'라고 불렀다고 한다. 물론 즐거움에는 '절제가 따라야 하는 법이지만 균형만 잘 맞춘다면 디저트는 일상에 행복을 보태줄 수 있는 작은 사치가 된다. 커피나 각종 차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요즘 한국에서도 수제 과자나 케이크 같은 페이스트리류의 프리미엄 디저트의 인기가 눈에 필 정도로 높다. 흔히 페이스트리는 정직한 양과 공정을 따라야 하는 '과학'이라고들 하는데, 21세기의 디저트 세계는 거기에 현대적인 창의성을 한 줌 보태 다채롭게 진화하는 듯하다.

〈삼총사〉, 〈몬테 크리스토 백작〉처럼 오늘날에도 널리 읽히는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는 5백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그중 마지막 작품은 요리에 대한 책이었다. 전형적인 요리책이라기보다는 서양의 요리와 제과에 대해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곁들여 설명한 〈뒤마 요리 사전〉에서 식육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굵주림에서 비롯돼 허겁지겁 음식에 달려들게 만드는 배고픔, 두 번째는 굵주리지진 않았지만 먹을수록 입맛이 생겨 식사를 지속하는 식욕, 그리고 마지막은 맛난 요리를 즐긴 뒤 또 자극을 받는 유희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식욕은 "디저트를 위한 배는 따로 있다"라는 말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듯하다. 요리를 즐겨 했다는 뒤마는 이 책에서 꽤 많은 페이지를 디저트에 할애했다. 그는 19세기 사람이었으므로 프랑스에서 전반적인 요리는 물론 디저트 문화가 무척 발달한 시대를 산 행운아(?)이기도 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사실 요즘은 당연하게 여기는 달콤한 디저트라는 존재도 예전에는 그 문화가 꽃을 피운 유럽에서조차 럭셔리리의 증표였다. 달달함의 원천인 설탕이 귀했기 때문이다. 설탕의 주원료 중 하나로 꿀이 나오는 풀이라 불리던 사탕수수 스페인, 시칠리아 등에서 재배됐고, 아랍인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중세에는 설탕 공급이 거의 정체되었는데, 16세기쯤에는 그나마 숯통이 트였다. 꽤 비싼 기호품이긴 했지만 설탕을 사용한 요리나 과자가 많이 나오면서 식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다. 베네치아에서는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설탕 과자를 침실에까지 가져가 자기 전에 먹었다고 한다. 1572년 지리학자 오르텔스는 〈세계 무대의 축도〉라는 책에서 "약국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 팔던 설탕을 이제는 식육을 돌우려고 먹는다. 이제 식품이 됐다"라고 쓰기도 했다.

카페 문화와 더불어 꽃피는 디저트 문화

과자 혁명이 16세기 싹트기 시작했다면 18세기에는 르네상스를 누렸다. 서인도제도, 카나리아제도, 마테이라제도 등지에 사탕수수를 갖기 위해 설탕 원료인 '사탕을 정제하는 공장이 생기고, 설탕이 과잉 생산되면서 공급이 원활해졌다.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18세기에 번성한 카페 문화 때문에 커피와 초콜릿이 유행하자 설탕 소비가 늘어나고 기호 식품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이란 책을 보면 커피는 18세기 사람들에게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를 정화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믿음을 줬으며 설탕은 영혼까지 녹일 듯한,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고양시키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 설탕을 듬뿍 넣어 만든 케이크나 과자 같은 디저트가 식단의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했고, 프랑스는 진정한 미식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서울을 보노라면 마치 18세기의 파리 풍경을 담은 듯한 면모가 종종 눈에 띈다.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카페가 많아지고, TWG, 살롱 드 테 같은 티 살롱도 속속 들어서면서 이런 기호 음료들의 '영혼의 파트너'라고 할 만한 디저트 문화 역시 활짝 피어나는 모양새다. 일례로 마카롱만 해도 전종의 강호 라두레가 한참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쌍두마차 격이지만 '보다 모던'하다는 평을 듣는 유명 브랜드 피에르 에르메도 현대백화점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스테디셀러인 치즈 케이크는 또 어떤가? 지난해 갤러리아백화점의 식품관 고메이494에 문을 연 치즈 케이크 팩토리가 승승

장구하고 있고, 신세계와 롯데는 각각 뉴욕의 알아주는 치즈 케이크 브랜드인 레이디M과 주니어스를 들여왔다. 제과와 제빵은 '신선함'이 생명기에 거의 카페들은 '순수 굵는' 각종 과자와 케이크로 승부하느라 여념이 없다. 코코브루니(Coco Bruni)처럼 디저트를 강점으로 내세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카페는 '나만의 맛'을 낼 수 있도록 공간까지 운영한다. 물론 설탕의 유희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란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식사의 마무리를 맛깔 나게 장식한다든지, 커피나 티의 달콤 쌉사래한 동반자 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고된 하루를 건디게 해주는 정신적인 자양분으로서 디저트를 '소량'으로 만족하는 건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즐거움이란 사실 역시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체질적으로 단 걸 거부하는 운 좋은(?) 부류라면 예외겠지만 말이다).

디저트에 대한 치명적인 이끌림, 뷔페로 한껏 달랠다

18세기 프랑스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매일같이 '탐했던 방식은 지양해야겠지만 특별한 날을 정해 마음껏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디저트 문화가 아닐까 싶다. 요즘 디저트 뷔페가 자주 눈에 띄는데, 하루 정도는 칼로리 부담을 내려놓고 양질의 디저트를 요요치로 경험하고픈 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12월 4일부터 28일까지 제공하는 '페스티브 애프터눈 티 뷔페'는 허가 호강할 정도로 맛나면서도 세련된 디저트를 푸짐하게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24층에 자리 잡은 '더 라운지'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며 맛볼 수 있는 이 명성 자지한 뷔페에서는 에디아르(Hediard) 티와 함께 상콤한 라즈베리잼을 넣은 이탈리아인 도넛 볼볼론지니, 화이트 초콜릿 라임 무스 위에 층층이 쌓아 올린 라즈베리 젤리, 독일 크리스마스 케이크인 마치판 슈틀렌 등 독특하고 다채로운 디저트를 무제한으로 '섭렵'할 수 있다. 달달함을 중화하려면 무화과를 올린 시리얼 브레드나 에그 셀러드를 째짤이 맛보면 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이 주말에 운영하는 하이티 뷔페도 매력적이다.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 뷔페에는 딸기를 풍성하게 얹은 생크림 케이크, 초콜릿 얼그레이 케이크나 부드럽게 녹아드는 초콜릿 리에주아 같은 달달한 디저트도 일품이지만 고소한 치즈를 채워 넣은 따뜻한 슈나 각종 샌드위치(특히 탐스러운 에클레르에 버섯 같은 달지 않은 식재료를 넣은 샌드위치는 '최고'다)는 얼마든지 '식사'로도 삼을 수 있다. 이 호텔에 합류한 프랑스 출신 페이스트리 셰프인 세바스찬 코커리는 "한국인들은 유럽 입문과는 달리 엄청나게 달기만 한 디저트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당도를 낮추고,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로 팬을 꽤 확보하고 있는 JW메리어트 동대문의 올다이닝 뷔페 타볼로 24(Tavolo 24)에 가면 디저트 뷔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디저트 뷔페만 따로 즐길 수도 있다). 티라미수, 머랭, 유자 에클레르 등 다양한 디저트가 마련돼 있으며 새콤달콤한 젤라토도 눈과 혀를 즐겁게 한다. 특히 이 호텔 뷔페의 자랑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특제 컵케이크 코너인데, 후식 포식을 하고 아쉽게 맛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배가 잔뜩 부를 확률이 높은 뷔페 고객을 위한 배려인지, 나갈 때 컵케이크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넨다.



애프터눈 티의 우아하고 나른한 매혹

프리미엄 홍차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보다 한가하고 나른하게 오후를 보내고 싶다면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 세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요즘 웬만한 5성급 호텔은 물론이고 티 살롱의 애프터눈 티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애프터눈 티 세트의 모이는 뭐니 뭐니 해도 3단 트레이다. 홍차와 함께 딸기잼, 그리고 정통 클로티드 크림을 곁들인 파네파네판 스콘과 맛깔스러운 샌드위치, 그리고 오색 찬란한 디저트로 구성된 오후의 스낵이 담긴 3단 트레이는 뭘서 그 자체로도 운치와 풍미를 보인다. 특급 호텔이나 백화점 프리미엄 코너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브랜드 TWG는 창당동을 비롯해 세 군데 티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기에 애한 한 수다를 곁들인 '우아한 티타임'을 갈구하는 여성들의 입맛과 발길을 동시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브런치 메뉴도 인기인 데다가 오후 3시에서 6시까지의 티타임을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즐길 수 있는데, 여기에는 TWG 티를 우려내 맛을 냈다는 인기 만점 마카롱을 기본으로 곁들인다. 예컨대 그랜드 웨딩 티를 가미한 TWG 티를 넣은 마카롱은 색상도 예쁘지만 쫄쫄한 식감이 독특하면서도 훌륭하다. TWG의 시그니처 1837 블랙 티를 가미한 블랙 티 & 블랙 커런트, 남성들이 더 좋아한다는 나폴레옹 & 캐러멜, 그랜드 웨딩 마카롱 등 8종류가 있다.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의 애프터눈 티 세트는 이미 디저트와 티 애호가를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인기 상품이다. 1층에 자리한 '더 라이브러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 티 세트는 최근 포송(Fauchon) 브랜드의 티 14종을 추가해 더욱 운택한 오라를 갖추었다. 영국 정통 스타일의 3단 트레이에 기념일을 맞이한 고객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셀브레이션 케이크'까지 덤으로 제공하며, 하프와 현아 4종류의 즉석 축하 라이브 공연도 곁들인다. 여의도의 콘래드 호텔 37층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 37 그릴 앤 바(37 Grill & Bar)에서는 '전망이 있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제공한다. 탁 트인 창으로 한강을 바라보면서 앙증맞은 프리 디저트 컬렉션을 맛볼 수 있다. 또 신라 호텔과 콘래드 서울의 애프터눈 티 세트는 공통적으로 프리미엄 샵세인도 택할 수 있다. 파크 하얏트 서울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도 황홀한 디저트의 정수를 골고루 담은 애프터눈 티 세트가 은근한 인기를 끌고 있다.

반짝 유행 vs 스테디셀러, 우리 입맛에 맞는 장수 디저트의 비결은?

고대와 중세에 희귀했던 단맛을 본 부유층은 도저히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설탕이 부의 상징이자 기호품이었지만 오늘날엔 흔하디흔한 게 디저트다. 중독성이 강한 건 여전히지만 디저트의 구도만 보자면 은근히 품목거리의 경쟁도 심하고, 소비지도 꽤나 까다롭고 변덕스럽다. 특히 단맛이 달한 과자류나 과일을 선호해온 한민족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국 신라 호텔 정홍도 셰프는 "마카롱이 자리를 잡는 데도 아마 15년은 걸렸을 것"이라며 "반짝 유행을 탈 수는 있겠지만 달콤한 디저트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에는 정통성과 함께 문화적인 맥락을 감안한 현지화가 조화를 이룬 데다 적절한 스토리텔링을 녹인 영리한 마케팅 효과까지 더해져 대박이든 '스테디셀러'든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페이스트리 부티크를 연 신라 호텔은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한

1 콘래드 서울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선보이는 디저트 드링크 시그니처 핫초콜릿, 뜨거운 우유를 부으면 프랑스 수제 초콜릿 불이 녹아내린다. 2 신라 호텔이 지난 가을부터 프렌치 에볼루션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인기 디저트 다푸아즈, '이혼드'의 고소함이 장기간 데다 같은 바삭, 속은 폭신해 식감이 빼어나다. 3 JW 메리어트 등 대문의 소문난 올 다이닝 뷔페 타볼로 24에 가면 풍요로운 디저트 뷔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돌아갈 땐 특제 컵케이크를 선사받을 수 있다. 4 요즘 창당동에서 소문난 TWG 티 살롱, 특급 호텔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티와 애프터눈, 유명한 티가미된 마카롱을 함께 만날 수 있다. 5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는 하이티 애프터눈 티 세트와 주말 디저트 뷔페가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 6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는 12월 4일부터 28일까지 오후의 디저트 뷔페를 연다. 혀를 황홀하게 하는 독특하게 세련된 디저트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다. 7, 8 코코브루니는 디저트로 유명한 카페다. 영국 왕실의 두 왕자가 크래프트 경이 때 먹었던 간식 '이른 매스'와 빅토리아 여왕의 애프터눈 티 파티에 등장했다는 빅토리아 샌드위치 2호.

프로젝트인 '프렌치 에볼루션(French Evolution)'을 올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정통 디저트를 '재해석'한다는 의도를 품은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올봄에 선보였던 에클레르, 커스터드와 휘핑크림으로 속을 채운 뒤 초콜릿을 씌운 디저트의 대명사 에클레르를 신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춘 9종으로 내놓았고, 이 중 2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가을부터는 요즘 인기가 심상치 않은 다푸아즈(dacquois)를 다채로운 버전으로 내놓고 있다. 머랭 반죽에 아몬드 가루를 넣은 과자인 다푸아즈는 프랑스 남서부의 지방색이 스며든 디저트인지라 파리에서도 흔하게 볼 수는 없다(오히려 프랑스 디저트를 더욱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혁신 사제가 많은 일에서 저 주 눈에 띈다). 같은 과하지 않게 바삭하고 속은 폭신하며 고소한 견과류와 부드러운 헤이즐넛 파우더의 향미와 맛난 크림까지 곁들여 식감이 상당히 빼어나다. 신라 호텔의 다푸아즈 프로젝트에서는 얼그레이, 캐러멜, 마카다미아, 코코넛, 호두 등 여섯 가지 버전을 선보였는데, 한국인의 입맛에도 상당히 잘 맞는다는 반응이다.

차세대 주지는 누굴까?

신라가 내년을 겨냥하는 차기 프로젝트는 '여왕의 디저트'라 불리는 생토노레(Saint-Honoré)와 모양새가 닮았다는 이유로 '수녀'라는 뜻을 지닌 슈 파자인 '릴리주즈(Religieuse)'다. 크림과 과자의 조화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생토노레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알려진 브랜드 달로와요의 세프였던 시부스트가 만든 커스터드 크림에 머랭을 합친 과자를 기원으로 한다. 영국 왕실이 즐겼던 한정판 디저트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던 디저트 카페 코코브루니에서도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면서도 한국인 입맛에도 어울릴 만한 디저트 시리즈를 내놓는 데 열심이다. 올해는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에 실제 쓰인 '초콜릿 비스킷 케이크', 여성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오렌지 마말레이드 파운드케이크, 그리고 아이들의 사랑을 담백 받는 피스타치오 & 초콜릿 머랭 등으로 호응을 얻었고, 내년에도 야심작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시그니처 핫초콜릿' 드링크로 디저트계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는 콘래드 서울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발로나의 수제 초콜릿 불에 따뜻한 우유를 부으면 유리잔 안에 들어있는 마시멜로와 함께 보글보글 녹으며 근사한 핫초콜릿 드링크가 탄생하는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선보인다. 이와 같이 나오는 부드러운 미니 초콜릿 케이크 불도 의외로 달다는 느낌을 많이 주지 않는 데다 맛도 일품이다. 이러한 고급 초콜릿 드링크는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아침 식사로 마실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파리의 부르주아들은 다방 커피처럼 외산 장부를 달아두고 초콜릿 드링크를 배달시켰고, 심지어 따뜻한 초콜릿을 담은 사방배 모양의 특제 은 주전자까지 존 재했다니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디저트의 세계 역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무궁무진한 매력과 스토리가 담겨 있는 듯하다. **KS** 에디터 **고성민**

Gift Guide

피터판이 100%인 에펠
프린트 한 2백만원
문의 02-266-8023



낙타모에 양가죽으로 포인트를
준 원피스, 아이보리 터틀넥 각
2백만원, 1백20만원 **탈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545-8200



화려한 주얼 장식의
브로치 21만5천원
슈비스아르모브스키
문의 1661-9080



코트 위에 매달려서 캐주얼한 퍼
스누드 49만5천원 **루이비통**
문의 02-3432-1884



여성스럽고 캐주얼한 화이트 컬러의 그레이스 레터 만년필 1백11만원 **롤렉스**
문의 02-3485-6827

for her THE LOOK

럭셔리한 퍼 스누드부터 산뜻한 컬러감의 토트백까지,
그녀의 까다로운 취향을 충족시킬 홀리데이 기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플로럴 패턴의 실크 스카프 5만15천원
구찌. 문의 1577-1921



여성스러운 미스텔랑의 에펠 배틀 글러 99만원
루이비통 문의 02-3438-8008



프레임이 클래식한
선글라스 40만원
폴스미스 by 루스타카
코리아. 문의
02-501-4436



선명한 레드 컬러의
말라 토트백,
31X22cm,
80만원대 **MCM**.
문의 02-540-1404

아름다운
프린트가
돋보이는 벨글
각 80만원대,
7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개성 있는 패턴을 프린트한 캐시미어 체크 머플러
81만원 **버버리**. 문의 02-3385-6636

최대급 오프로드 패카 카본섬유 기어의 조화가 뛰어난
정원 1백11만원 **가이론** 문의 02-8905-3787



양가죽 랙사이드 클러치 28X17cm,
1백11만원 **발렌티노**. 문의 02-343-5125



AIGNER
CELEBRATING 50 YEARS



AIGNERMUNICH.COM

Gift Guide

크레이프 울과 캐시미어 블렌딩의
잇스루로 바느질된 이블링과
30만엔대 **모터**.
문의 02-3218-3331

안쪽에 부드러운 양털이 들어있고
다양한 패턴을 연출하는 데를 위해
기름. 문의 02-6905-3787

브랜지의 시그니처인
다이아몬드 패턴이 멋스러운
레드 컬러 빅 사이즈
클러처. 38X23cm,
1백68천원 **구찌**.
문의 1577-1921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는 펜. 스타워커 불펜 50만엔 **동방양**. 문의 02-3485-6627

신선한 울과 캐시미어 블렌딩의
이블링. 문의 02-344-7722

러브 코팅 가죽에 내부의 퍼
다테일로 보온성을 더한 아이만
퍼스너즈. 1백5만엔 **발리**.
문의 02-3467-8835

LV 시그니처
메탈 플래이트
장식이 매력적인
사인 잇 브레이슬릿
45만엔대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샤워실로 휴식장
이벤트 **이베**
아이스틀 **이베**

for him
THE LOOK

올 연말엔 그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합리적인 가격대, 질리지 않는 클래식하고 멋스러운 스타일로
실패할 확률이 적은 선물 리스트를 준비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정장에 매치해도 손색이
없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파딩 1백35만엔 **몬테고레**.
문의 02-310-1314

매달려진 보잉 신물리스
40만엔대 **자형시 by 디리**
F&S. 문의 02-546-7764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소가죽 모디스
토티백. 38X28.5cm,
37만18천원 **샘스나이트**.
문의 02-3280-3770

처럼 크레이프 울과 캐시미어 블렌딩의
이블링. 문의 02-515-4088

가죽 꼬임 밴드와 울스빛
버클 장식이 포인트인
팔찌 1백35만엔 **구찌**.
문의 1577-1921

잇스루로 바느질된 캐시미어 블렌딩의
스웨이드 코트. 드라이빙 슈즈
70만엔대 **토즈**. 문의 02-3438-6038

레드 스트라이프 셔츠,
레드 컬러 실크 타이
각 51만엔, 25만엔
에르메네제르.
문의 02-6905-4790

SWAROVSKI.COM



Miranda Kerr

SWAROVSKI

Gift Guide



해리슨 제트마스터 뷰메터 스텝레터 레이디 복잡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눈으로 즐길 수 있는 화려한 다이얼에 화이트 밴드를 매치해 여성미를 더한 워치. 1백47만원. 문의 02-3438-6231



피로미자이나 톨다 메트로그래프 볼륨감 넘치는 브레이슬릿과 뛰어난 착용감, 심플하지만 구조적인 디자인 디자인이 멋진 남성용 워치. 인 하우스 무브먼트 PF315를 장착했다. 1천5백90만원. 문의 02-310-1737



모리스 리브르의 마스터피스 페이즈 드 룬 합리적인 가격에 클래식한 문레이즈와 로마자가 새겨진 우아한 다이얼 디자인, 오토매틱 워치의 매력까지 만끽할 수 있는 워치. 5백30만원. 문의 02-3213-2248

THE WATCH

그 어떤 순간에도 곁을 지켜줄 믿음직한 클래식 워치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빛을 상징한다. 신뢰와 감사, 무한한 애정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평생 최고의 선물이 되어줄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에르메스 케이프 코드 터너 GM 상비 용해, 세로계 선반의 상비 스케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바깥, 스무스 골드와 바이올렛 아이 스트랩을 매치했다. 화려한 디테일이 인상적이다. 2천만원대. 문의 02-3448-0728



시넬 J12 블루 레이디 여자들의 문양인 사슴의 화이트 세라믹 워치. 가장 기본형인 순백의 세라믹에 독특하게 피스텔 블루 컬러의 이형 인덱스 다이얼을 매치한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한정판 J12. 6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태그하이어 까르띠에 칼리버 1887 크로노그래프 43mm 크로노그래프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까르띠에. 전설적인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크로노그래프로 스피드를 자랑하는 남성용 워치 컬렉션이다. 7백77만원. 문의 02-548-6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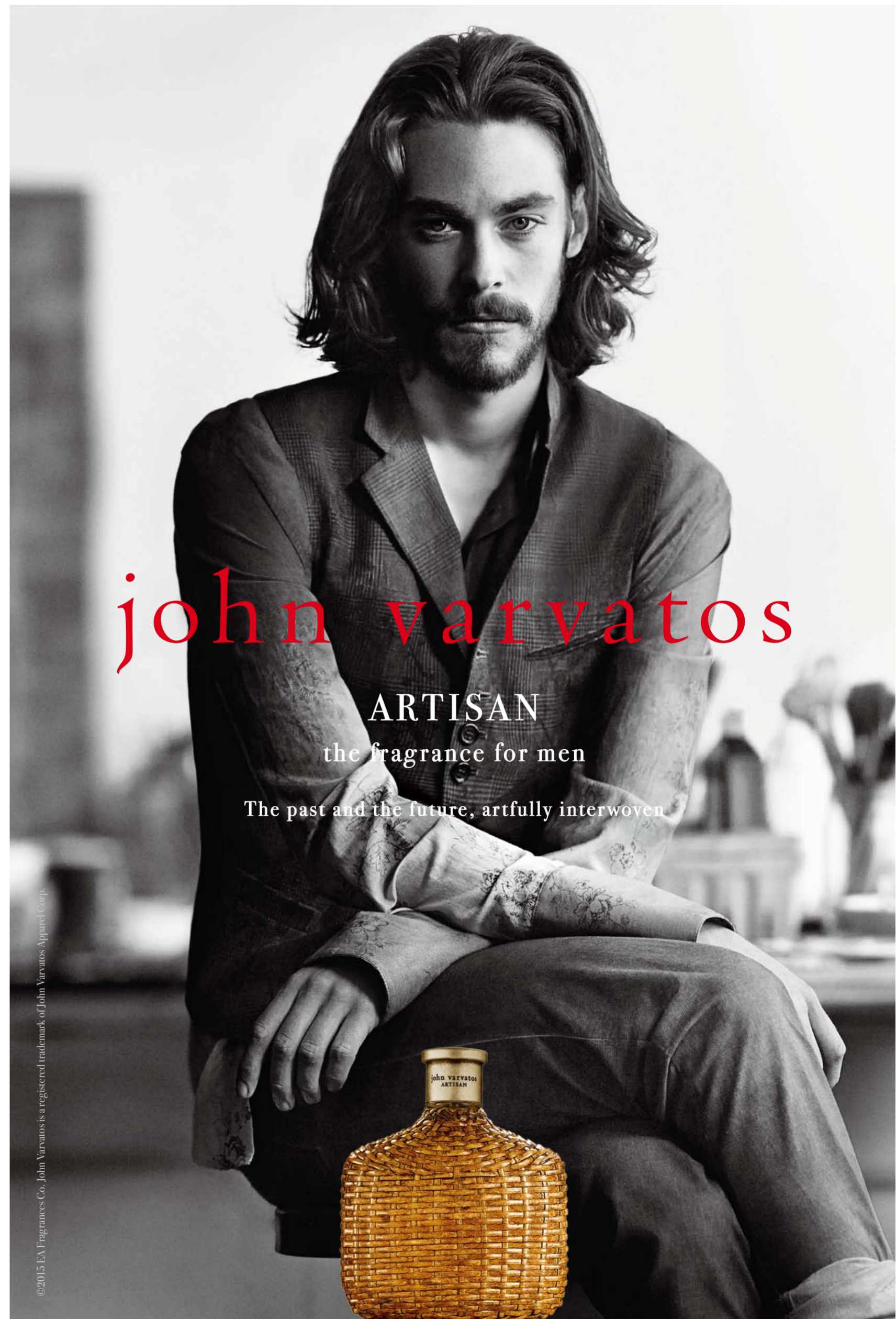
까르띠에 뉴 베누아 워치 프랑스어로 욕조를 뜻하는 베누아 워치. 우아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뉴 베누아 컬렉션으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다. 1천2백만원대. 문의 1566-7277



몽블랑 보렐 오토매틱 데이트 스틸 워치 여성의 스킨트를 연상케 하는 다이얼의 기묘세 패턴이 우아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워치. 블루 핸드기 아름답다. 4백20만원. 문의 02-2118-6053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플루마 깃털에서 영감을 얻은 레드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클리 워치. 오메가의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클래식하다. 6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미진



©2015 EA Fragrances Co. John Varvat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ohn Varvatos Apparel Corp.

JOHNVARVATOS.COM

Gift Guide



까르띠에 팬더 까르띠에 링&링 넥트라베 팬던트 네크리스 모티브 링 7백90만원대, 락카 앙트라베 팬던트 네크리스 6백10만원대, 문의 1566-7277



벨가리 다바 컬렉션 네크리스 오닉스와 코발린으로 완성한 부채 모양의 팬던트 네크리스, 직지만 디자인과 색상이 눈을 사로잡는다. 각 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2



사텔 까멜리아 네크리스&링 블랙 세라믹 소재로 세련된 동백꽃을 표현한 네크리스와 링,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각 5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THE JEWELRY

화려한 원석과 섬세하게 세공한 골드는 여자들에게 가벼운 흥분감을 선사한다. 작은 반짝임이 만드는 행복한 속삭임, 영원히 기억될 주얼리 기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타파니 T 컬렉션 브레이슬릿 올레 타파니가 새롭게 선보인 모던한 디자인의 타파니 T 컬렉션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중 선택할 수 있다. 각 5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타사키 프리티 인 펠스 솔리데이 컬렉션으로 귀여운 동물에 진주 네크리스를 매치한 사랑스러운 팬던트, 양과 고양이, 강아지 등 다양한 동물 모티브 중 선택할 수 있다. 팬던트 60만원대, 쇼트 체인 30만원대, 문의 02-3461-5558



포델라프 미아논 미아 링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이탈리아 컬러 스톤 주얼리, 왼쪽부터 화이트 문스톤, 가시, 에미스트를 세팅했다. 레이아웃해서 착용하면 더욱 멋스럽다. 각 1백77만원, 문의 02-2185-8237



루시에 네크리스&링 주은 겨울 눈꽃을 모티브로 한 아베 링크 골드 네크리스 40만원대, 플라타네에 작은 링크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리야우 링 1백90만원대, 리본 모티브의 누브라링 링 1백50만원대, 문의 02-512-6914



부세론 배행 팬던트&리프트 화이트 미니 링 팬던트 뱀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배행 네크리스 7백만원대, 옐로와 화이트 골드, 화이트 세라믹을 매치하고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코트로 네크리스 9백만원대, 문의 02-3213-2246



에르메스 실버 주얼리 순도 높은 실버로 완성한 주얼리 컬렉션, 스타드 모티브 브레이슬릿 3백만원대, 원형 모티브 브레이슬릿 1백만원대, 문의 02-3015-3251 에디터 배미진



CELEBRATE YOUR CHRISTMAS MOMENTS

PANDORA
UNFORGETTABLE MOMENTS

MY STORY, MY DESIGN

Discover the new Christmas collection and celebrate your special moments. Express your story and create a wish at pandora.net PANDORA. Founded in Denmark in 1982.

New Opening CONCEPT STORE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입구점분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천호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분점 잠실점 스타시티점 노원점 수원점 평촌점 대구점 울산점 광주점 부산점 센텀시티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영등포점 경기점 광주점 센텀시티점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AK PLAZA 수원점 분당점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신라면세점 서울점 롯데면세점 소공점 코엑스점 월드타워점 인천공항점 부산점 신세계면세점 JDC면세점

Gift Guide



Grooming item for man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랩 시리즈 에이지 레스큐 + 페이스 로션** 강력한 인삼 추출물이 주름과 피로의 흔적을 지워주는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6만5천원. **클라린스 맨 수퍼 모이스처 밤** 건조 후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한다. 50ml 5만6천원. **SK-II MEN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독자적인 피테라™ 성분이 피부를 맑고 생기 넘치게 해준다. 75ml 9만9천원. **비오셀 울트 토날 리차지 에이지 부스터** 모이스처라이저 인삼 추출물, 카페인, 구아라나의 3중 에너지를 복합체가 피부를 개선하는 에센스. 50ml 6만2천원.

THE BEAUTY

홀리데이 선물에 빠질 수 없는 뷰티 리스트.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과 에센셜 메이크업 팔레트, 남성용 그루밍 아이템,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수까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ssential shades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버버리 컴플리트 아이 팔레트** 고밀도 입자로 이루어진 골드 팔레트. 5.4g 6만5천원. **인생로망 구워진 팔레트** 만드러진 드레스에서 영감을 얻은 다섯 가지 컬러를 담은 아이섀도 팔레트. 5g 8만3천원. **나스 블러쉬** 인로를 어떤 피부 톤에나 건강한 핑크색이 들게 하는 블러셔. 4.8g 3만9천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즈 액티비티** 빈틈없는 완벽한 레드 립을 만드는 립스틱. 4g 3만9천원. **에스티 로더 쿼이 글라** **인비 스킨프팅 아이섀도우 팔레트** 베이스부터 중간 톤, 포인트 컬러까지 담아 그윽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7g 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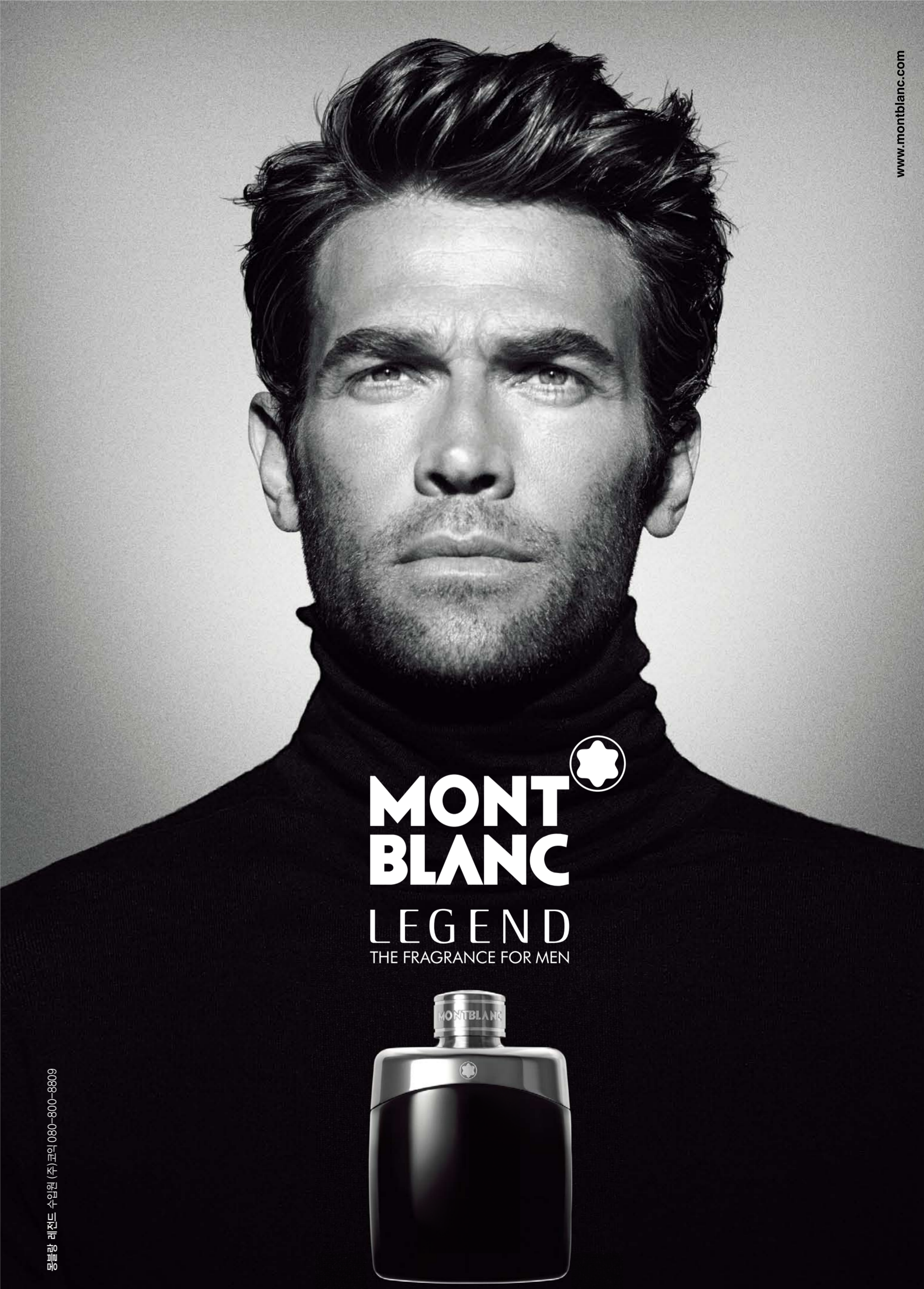


Premium beauty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수블리마지 레방스** 기존의 수블리마지 기능은 유지하고, 피부 독소 제거 기능을 더해 피부 광채를 실현하는 세럼. 30ml 51만원. **랑콤 절대빛 뷰티파밍 미스트 로션** 10주간 발효 과정을 마친 장미 줄기 세포의 생명력을 담은 활성 미스트. 150ml 15만원. **클레드보 보메 라 크렘** 탄성부터 각질층으로 올라올 때까지 세포의 일생을 프로듀스한다는 콘셉트로 탄생한 하이엔드 크림. 30ml 68만원. **설화수 지어제** 세안 후 잔여 수분이 깊고 넓게 뻗어나가는 주름 줄기 현상을 공격한 인티에이징 에센스. 35ml 15만원.



Alluring scent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애킨슨스 24 울드 بند 스트리트** 오드코롱 2백 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영국의 대표적인 나치 향수 브랜드 애킨슨스의 상쾌한 향수. 50ml 13만5천원. **보테가 베네타** **늦 오후** 민들레, 라임 열매, 네롤리의 상쾌한 톨 노트와 마스코, 톱카 빈의 베이스 노트가 아우러진 아류적인 향수. 50ml 15만원. **조 말론 런던 피오니엔** **블라쉬 스퀘어드** 화려하게 핑 작과 밝은 사과, 자스민이 부르는 관능미를 선사하는 향수. 30ml 8만4천원. **존 바버토스 빈티지 EDT** 클래식한 남자를 위한 매력적인 향수 75ml 8만2천원. **에디터** **이베린**

샤넬 080-332-2700 다음 02-3438-9537 클레드보 보메 02-3438-6032 랑콤·조르지오 아르마니·비오셀 울트·인생로망 080-022-3332 SK-II 080-023-3333 나스 02-3456-0161 버버리 02-3485-6583 애킨슨스 080-800-8809 존 바버토스 02-3443-1805 보테가 베네타 02-6924-6572 조 말론 런던 02-3440-2750 설화수 080-023-5454 클라린스 맨 080-542-9052 랩 시리즈 02-3440-2879



MONTBLANC
LEGEND
 THE FRAGRANCE FOR MEN



몽블랑 레전드 수입면 (주)코맥 080-800-8809



Gift Guide

선물 상자, 눈꽃이 그려진 종, 연인, 하트 모티브 참으로 이루어진 사랑스러운 팔찌, 90만원대 판도라, 문의 1688-5501

유망 디자이너가 겨울을 일깨워 주는 향수를 함께 추천한다. 15만원대 샤비, 문의 02-3142-9840

공기처럼 가벼운 골드 입자가 보드랍고 은은하게 감싸는 시버 파우더. 17.5g 12만3천원 컬러 코코 도르 퍼플 드 슈어 파우더, 문의 080-343-9500

울룩울룩한 표면과 골드 버튼이 돋보이는 슬더백 1백20만원대 미우미우, 문의 02-3218-5341

독특한 비를 장식이 특징인 약자가죽 방글 각 50만원대 콜롬보 비아 델라 스파가, 문의 070-7130-9200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입문자용 DSLR 카메라 9만9천원 캐논 EOS 700D, 문의 1588-8133

이 플랫폼 하나면 홀리데이 메이크업 완성. 7만원 샤비도, 문의 080-564-7700

SPECIAL PICKS

반짝이는 클러치 백과 메이크업 팔레트, 특별한 패키지로 선보이는 홀리데이 에디션과 카메라, 리빙용품 등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스페셜 기프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레드 컬러와 앙목스러운 패턴을 입은 플레이트는 파티 테이블을 풍성하게 꾸어준다. 수프 볼 2p, 디너 플레이트 2p, 빅 플레이트 2p 모두 패키지로 구성 20만원대 휘슬러, 문의 080-400-4100



크리스마스 테이블 세팅에 제각각 빨간 휴지, 3종 텐스 2만8천원 레노바 볼락 레이플, 문의 02-3470-0099 루돌프 모양 휴지갑이 6만8천원 디큐메이터, 문의 1544-2720



홀리데이 에 어울리는 금빛 향수의 대표 주자, 그라스 자형의 메이 로즈 앰플루와 삼박 재스민의 관능적인 향을 담았다. 40ml 20만3천원 디올 자도로 로르, 문의 02-3438-9631

선반 위에 올려두면 공간에 활력을 주는 티슈 케이스 2만원대 마카베라필리 by 매스티지 데코, 문의 1544-0366



알레차의 따뜻한 향과 정금의 향상을 담은 트로피컬 테마의 기프트 박스로 구성된 홀리데이 스페셜 에디션 가격 미정 라뒤레, 문의 02-3440-1401



유행하는 카툰캐릭터를 인형 동전 지갑, 키트나 명수종 명함을 수납하기에 좋다. 79만원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Prestige, 파워를 더하다

The new Audi A8 L 50 TFSI quattro



The art of progress

The new Audi A8 L 50 TFSI quattro

Audi만의 TFSI 엔진 기술이 결합된 강력한 프레스티지 세단. The new Audi A8 L 50 TFSI quattro, 0-100km/h 5.9초, 최고출력 330마력, 9년 연속 세계 TOP 10 베스트 엔진으로 선정된 V6 슈퍼차저 TFSI 엔진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드라이빙을 구현하는 풀타임 사륜구동 quattro와 8단 티프트닉 변속기, 그리고,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하는 컴포트 시트와 매혹적인 BOSE 사운드 시스템까지. 이것이 TFSI 엔진으로 프레스티지에 파워를 더한, The new Audi A8 L 50 TFSI quattro이다. www.audi.co.kr

Audi Vorsprung durch Technik

전시장	• 목동 02)2676-1468 • 송파 02)412-3468 • 인천 032)465-1468 • 대구 053)744-7070 • 원주 033)766-7786	• 동대문 02)2247-2460 • 대전 02)555-3468 • 수원 031)241-0033 • 광주 062)225-8777 • 춘천 033)263-4200	• 한강대로 02)790-1468 • 용산 02)797-1468 • 천안 041)567-3111 • 순천 061)746-7733	• 도곡로 02)564-1468 • 분당 수내 031)743-0000 • 청주 043)265-7799 • 전주 063)915-0000	• 강동 02)489-3468 • 분당 수내 031)712-7777 • 청주 043)265-7799 • 창원 055)245-2233	• 방배 02)523-1468 • 안양 031)422-0000 • 부산 해운대 051)995-0000 • 포항 054)275-0066	• 창동 02)516-2468 • 일산 031)905-1468 • 울산 052)257-3883 • 포항 054)275-0066	• 서초 02)521-0000 • 광교 031)263-0000 • 대전 042)863-8787 • 군산 063)461-0110
사회서비스	• 대치 02)655-4834 • 수원 031)634-0033 • 울산 052)227-2255	• 성수 02)3425-0033 • 부산 남천 051)628-0056 • 창원 055)245-0999	• 송파 02)400-2834 • 부산 미천 051)626-0056 • 원주 033)764-8787	• 영등포 02)2672-1468 • 대구 053)260-8000 • 대전 042)862-8802 • 제주 064)744-0911	• 서초 02)607-8255 • 용산 02)708-1468 • 청주 043)265-8802	• 분당 서현 031)715-8255 • 인천 031)905-1463 • 광주 062)224-5369	• 인천 주안 02)429-1468 • 순천 061)724-3500	• 인천 구월 02)465-1462 • 전주 063)905-5500

※차량 및 표준연비: 아우디 A8 L 50 TFSI quattro (배기량: 2,995cc, 공차중량: 2,050kg, 자동8단, 복합연비 9.7km/l (도시연비: 8.3km/l, 고속도로연비: 12.2km/l),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83g/km.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주문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Watches & Wonders 2014

하이엔드 워치만을 선보이는 '워치스 앤드 원더스'의 컬렉션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장이다. 예술적인 영감을 담은 아트피스부터 오랜 장인 정신과 역사로 완성한 놀라운 기술력의 워치,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주류로 떠오른 여성 컬렉션까지 워치스 앤드 원더스에서 선보인 가장 인상적인 워치를 소개하는 두번째 워치스 앤드 원더스 리포트.

High-Tech 신소재, 최고의 기술력, 완벽한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워치 컬렉션



에거 콜리트리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그랑 컴플리케이션

미닛 리피터, 플라잉 투르비용, 조차막 캘린더까지 가장 완성도 높은 기술력을 담은 기능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특별한 하이 주얼리 워치. 단 하나도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 모두 어우러질 수 있게 무브먼트를 설계하고, 이를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 바게트 컷 세팅으로 베젤을 감싸 찬란한 광채를 느낄 수 있도록 고안했다. 손목 위에 전문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복잡한 스카이 차트를 묘사한 다이얼을 깨도 살아 화전하는 플라잉 투르비용이 눈을 사로잡는다. 2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공으로 맑은 소리를 내는 미닛 리피터는 케이스 옆에 장착된 버튼을 간단히 누르는 것만으로도 맑고 영롱한 소리를 전한다. 1백81년간 이어온 파인 워치메이킹 브랜드의 정수가 담긴 컬렉션으로, 단 8개 한정 생산했다.

피아제 엠펠리도 쿠쌍 투르비용 다이아몬드-세팅 스키타론

워치메이킹과 주얼리 세팅 분야에서 모두 탁월한 성취를 이룬 피아제의 모든 기술력이 총집결한 드라마틱한 컬렉션. 피아제 자체 제작 울트라 신 무브먼트인 칼리버 1270D를 장착했는데, 플래티넘 소재의 마이크로 로터와 완벽하게 균형 잡힌 밸런스 브리지도 돋보인다. 빈틈없이 총출력이 이어진 다이아몬드 세팅 역시 피아제의 기술력이 잘 드러나는 부분. 6백50개의 브러시링 컷 다이아몬드 4.47캐럿, 44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7.77캐럿, 92개의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2.97캐럿, 8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0.27캐럿이 워치 케이스를 완벽하게 감싸 역시 피아제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세계를 최초로 제안한 오데마 피게의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의 대담함과 견고함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컬렉션. 가장 최근에 개발한 인 하우스 무브먼트인 셀프와인딩 칼리버 2897을 장착해 오데마 피게 매니아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미 1966년 울트라신 셀프와인딩 투르비용 손목시계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는 오데마 피게는 이번 컬렉션에서도 그 기술력을 그대로 이어가 0.45g에 불과한 투르비용을 완성했다. 특히 투르비용에 블랙 컬러의 티타늄 브리지를 채택해 케이스 중앙의 단조 카본, 세라믹과 티타늄 소재의 푸시 버튼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대담한 팔각형 구조와 육각형 스크류, 대조적인 표면 마감 처리는 하이엔드 워치의 필수 조건인 완벽한 파니시이었던 것까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Women's Collection 오직 여성을 위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컬렉션

IWC 포르토피노 미드사이즈

올해 워치스 앤드 원더스의 주요 키워드가 여성용 시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여성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IWC가 대대적으로 선보인 포르토피노 미드사이즈(Midsize)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였다. 오버사이즈 워치의 대명사인 포르토피노 컬렉션을 여성을 위한 37mm 버전으로 론칭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점이다. 하이엔드 워치 세계에서는 비교적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IWC에서 출시한 여성 워치인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피터 린드버그와 여배우 케이트 블란쳇, 저우연, 캐롤리나 쿠르니코바와 함께한 광고 캠페인도 프레스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로저 드뷔 벨벳 컬렉션

보다 대담하고 과감해진 로저 드뷔의 여성 컬렉션. 코르셋과 블랙 망사, 민크 소재 등을 가침 없이 매치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수작업으로 완성한 이번 여성 컬렉션은 기존 로저 드뷔 여성 컬렉션의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은 것은 물론, 화려한 디바의 세계에서 영감을 얻어 여성의 관능적인 곡선을 상징하는 벨벳 코르셋과, 블랙 망사 스타킹에서 영감을 얻은 벨벳 파스만트리가까미 팔 패달 워치의 모든 것을 담았다. 로저 드뷔의 대담함을 전하는 톰 모델 스테파니 시모어가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 역시 시계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화려하다. 물론 시계 장인인 로저 드뷔의 컬렉션인 만큼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RD821을 장착해 드라마틱한 외관만큼이나 기계식 시계로서의 가치도 탁월하다. 벨벳 컬렉션을 위한 모든 세공은 각 소재별로 가장 명량 높은 부티크들과의 협업베이션으로 완성했다.

랑에 운트 최네 랑에 탄생 1백20주년 컬렉션

진중한 매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독일 워치 브랜드 랑에 운트 최네 역시 보수적인 하이엔드 워치로서는 이례적으로 랑에 1호시 20주년을 기념해 랑에 1호 여성용 워치인 리틀 랑에 1호로 구성된 특별한 카를 워치 컬렉션인 랑에 탄생 1백20주년 컬렉션을 선보였다. 사실 동양을 제외하고는 카를 워치라는 개념이 없기에 유럽을 기반으로 한 워치 브랜드에서는 카를 워치가 생소하다. 이 클래식한 브랜드에서도 이러한 세트 구성을 선보였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의 폭발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여성용의 경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36.1mm 직경의 워치로 매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다. 다양한 소재와 컬러를 매치한 다섯 가지 세트 구성 이번 20주년 컬렉션은 각 20피스 한정 생산한다. 두 모델 모두 칼리버 L901.0을 장착했다.



까르띠에

바세론 콘스탄틴



Artistic Collection 예술적 심미안으로 완성한 드라마틱한 워치 컬렉션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유니크 피스

동물을 모티브로 섬세하게 묘사하는 하이 주얼리 워치 컬렉션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까르띠에.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교하게 세팅한 스카이 모티브 워치와 옐로 사파이어를 세팅한 음사던 워치는 오직 까르띠에 장인들의 상상 속 세계에서 탄생하는 예술 작품이다. 섬세하지만 추상적인, 보석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브랜드의 정신은 고스란히 담은 유니크 피스는 까르띠에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마치 꿈과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 단 1피스를 완성하기 위해 1천5백 시간 이상이 필요함에도 매년 더 멋진 하이 주얼리 워치를 선보이는 까르띠에의 정신은 매년 시계 박람회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반클리프 아펠

반클리프 아펠 레이디 아펠 워 필라데 포에틱 컴플리케이션

올해 워치스 앤드 원더스를 위한 신제품인, 아름다운 유성에서 영감을 받은 포에틱 컴플리케이션 타임피스. 유성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현상을 시계에 담은 반클리프 아펠의 새로운 워치는 1년에 12개의 유성이 떨어지도록 고안한 다이얼은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유성을 표현한 다이얼은 정확히 1년에 한 바퀴 회전하여 뒷면의 캘린더에 날짜를 알려주며 해당 연도에 시계당 떨어지는 유성의 평균 개수를 곡선을 통해 알려준다. 단순하지만 알려주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시간을 소유하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워치를 추구하는 반클리프 아펠만의 매력을 담은 워치다. 워치 가운데서 머더오브폴로 표현한 구름 형태도 시공했다.

바세론 콘스탄틴 메티에 다르 레르주 드 라 네이처

자연에 버는 찬사라는 의미를 지닌 바세론 콘스탄틴의 장인 정신이 담긴 컬렉션. 해마다 예술과 공예에 대한 브랜드의 열정을 담아 선보이는 메티에 다르 컬렉션의 신제품인 레르주 드 라 네이처 컬렉션은 시와 분을 표기하는 한도 없는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다이얼을 선보였다. 금으로 만든 아생피와 알프스 산의 시무아, 동쪽에서 날아오는 두루미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세 가지 디자인의 워치가 완성도 높은 하이 컬렉션을 완성했다. 기묘하게 패턴과 나무를 이용한 상감 기법,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마스터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된 것으로, 사실주의적인 기법을 사용했다. 4개의 모서리에서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고안한 2460G 칼리버는 이번 컬렉션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도록 고안한 창의적인 무브먼트다. 제네바 출마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로, 시계 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imited Edition 브랜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오직 소수의 워치 컬렉터들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에디션

파넬라이 라디오펠리 3데이즈 GMT 오로 로스

다이얼은 단순하지만 백 케이스에서 정교함을 형상화할 수 있는 파넬라이 특유의 매력을 담은 스페셜 에디션. 지금까지 선보인 단순한 디자인에 아주 작은 변화만을 더해왔지만, 진한 블루 다이얼과 레드 골드 케이스의 절묘한 조화는 파넬라이의 매니아인 팬네리스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군더더기 없이 단순한 브랜드 고유의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컬러와 몇 가지 시간 표시 요소를 더해 클래식한 매력이 느껴진다.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P.3001/10 칼리버는 두 가지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GMT 기능과 3일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단 2백 개만 제작된 특별 에디션으로, 파넬라이 고유의 매력에 특별한 컬러를 입혀 소장 가치를 높였다.

몽블랑 오마주 투 니콜라스 루섹 스페셜 에디션

몽블랑 워치 컬렉션 중 가장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인상적인 기능으로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니콜라스 루섹의 한정판 에디션. 프랑스 왕실의 워치메이커였던 니콜라스 루섹이 경주마의 기록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를 손목시계로 구현한 이 워치는 각 60초와 30초 경로를 표시할 수 있는 2개의 하얀 에펠 디스크가 회전하는,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워치 발명가인 니콜라스 루섹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는 컬렉션이다. 날짜 디스플레이, 세컨드 타임 존과 낮과 밤을 표시하는 인디케이터까지 담겨 있어 1821년 오리지널 크로노그래프를 재현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아름다움까지 더해졌다. 더블 바렐 무브먼트인 기계식 매뉴얼러 칼리버 MB R200은 7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6시 방향에 우아하게 침투하는 경주마의 모습이 담겨 있고, 백 케이스에는 경주마와 Paris, September, 1821 문구가 새겨져 있다. 로즈 골드 버전 30개,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 1백 개 한정 판매한다.

리처드 밀 RM57-01 재키한 투르비용

다양한 소재와 대담한 디자인으로 워치스 앤드 원더스에서 많은 방문객과 VIP의 눈을 사로잡은 리처드 밀. 남다른 시계 철학을 지닌 오너 브랜드에게 컬렉션 모두가 특별하다. TM57-01은 실제로 부스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이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토너 형태의 케이스에 담겨 있는, 아시아 문화에서 전설적인 동물로 여겨지는 봉황과 용 장식을 표현한 화려하고 정교한 무브먼트는 자꾸 들여다보게 될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를 선보인다. 세계적인 액션 스타 스티븐 스콧의 컬래보레이션으로 완성한 제품으로, 오직 20개만 한정 생산한다. 50mm에 달하는 박력 있는 케이스가 담고 있는 화려한 디자인의 12.30mm 투르비용의 완성도도 뛰어나다. 화려함과 정교함, 스포티브함까지 모두 담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가공하기 어려운 완성도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리처드 밀의 워치인 만큼 베이스 플레이트와 브리지, 케이스를 조립하는 나사까지도 5등급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다. 에티 베타인홍콩 현지 취재





CHANEL

FINE JEWEL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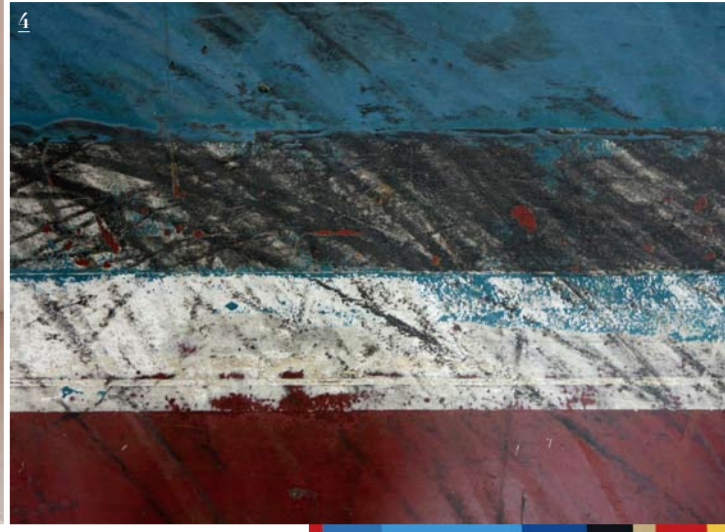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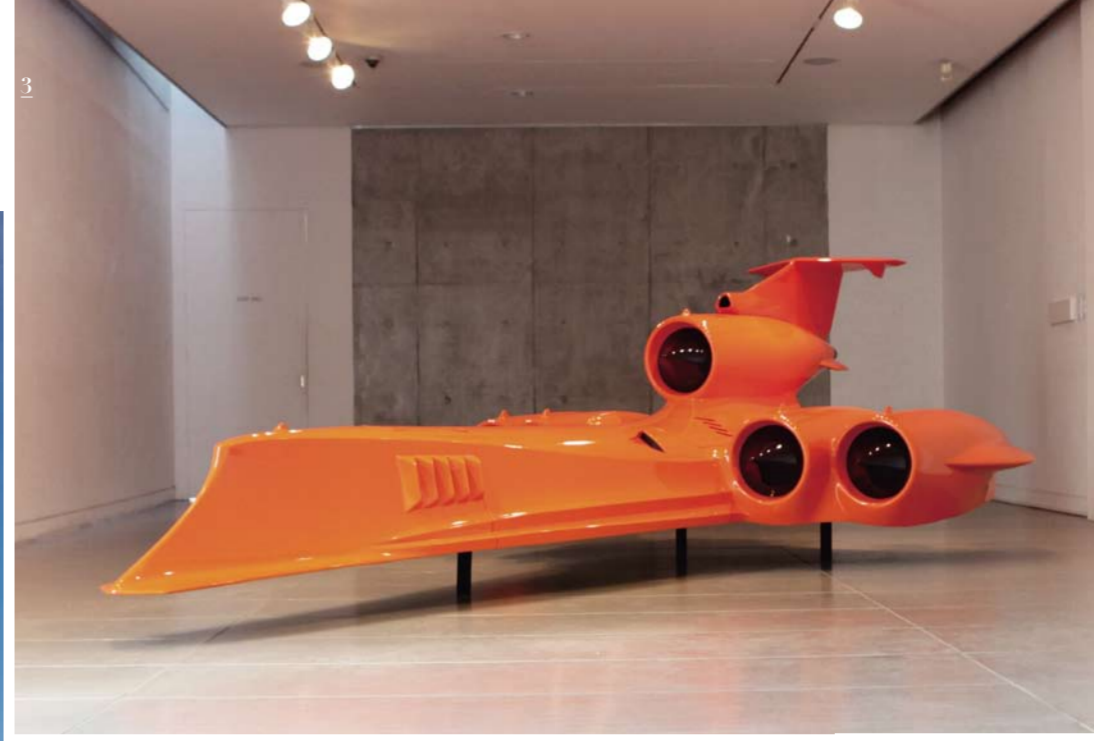


"CAMÉLIA"

RING WHITE GOLD AND DIAMONDS

갤러리아 명품관 East (02) 3442-0962

www.chanel.com



아트워크로 재탄생한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미래

자동차에서 영감을 얻는 국내의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자. 사실 자동차도 어찌 보면 하나의 작품이기에 예술 작품에서 탄생한 또 다른 아트워크는 다채로울 수밖에 없다. 브랜드의 정신을 작품으로 승화하는 게리 유다, 일본의 풍속화인 우키요에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만드는 나카무라 데쓰야, 슈퍼 카를 조각으로 표현하는 권오상 등의 작품은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보게 한다.

조각 작품으로 재탄생한 자동차

평범한 사물에서 비범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아티스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자동차는 그저 골칫거리지만, 미술가들은 자동차에서 빛나는 영감을 얻어 작품을 만든다. 먼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중 한 명인 권오상 작가의 작품부터 감상해보자. 공간 사육을 개조해 최근 오픈한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에는 그의 대형 브론즈 자동차 조각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조각 시리즈 '네오도란트 타입'으로 알려진 권오상 작가의 '더 스킵프처 시리즈 중 하나인 'The Sculpture 2'다. 이 작품은 발상부터 의미심장하다. 권오상 작가는 조각 작품은 무겁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해 스티로폼의 일종인 이소핑크로 만든 조형물에 사진을 붙여 사진 조각 시리즈 '네오도란트 타입'을 만들었다. 그의 사진 조각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많은 인기를 누리는 작품이 되었다. 연이어 가장 조각다운 조각을 만들기 위해 무거운 재료인 청동으로 작품을 만들고 이를 '더 스킵프처' 연작으로 명명했다. 그리하여 권오상 작가의 '네오도란트 타입'은 한두 명이 거뜰히 들 수 있지만, '더 스킵프처' 시리즈는 운반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관람자들에게 '정물 조각'으로 인식되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동으로 화장품, 휴대폰 등으로 만들어보았는데, 결국 가장 현대적인 오브제인 자동차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혹은 엔초 페라리 같은 슈퍼 카를 만들게 되었지요." 권오상 작가는 슈퍼 카는 일종의 현대미술과 같다고 말한다. 1천 마력의 엔진 성능을 다 사용해볼 수도 없으며, 실내는 좁고 편의 시설도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가의 유명한 현대미술품이라 해도 사실 실용성은 전혀 없다는 작가의 비유가 재미있다. 작가는 자동차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드는 미술가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자동차를 조각한 사람은 없다. 권오상 작가는 이외에 두카티 오토바이를 조각으로 만든 '토르소'와 잠지에서 잘라낸 자동차 사진들을 촬영한 '더 플랫폼' 시리즈의 '보터스 1' 등을 선보였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작가는 실제 슈퍼 카를 보지 않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가는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고 작품을 만들었고, 이런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경주용 자동차와 클래식 카에서 영감을 받다

권오상 작가가 슈퍼 카에서 영감을 얻었다면 일본의 나카무라 데쓰야는 경주용 자동차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창당아트센터의 장승현 디렉터는 나카무라 데쓰야의 작품이 일본 풍속 화 우키요에의 대가, 가스시가 호쿠사이의 '부악삼십육경(富嶽三十六景)' 시리즈를 연상시킨

다고 했다. 나카무라 데쓰야의 자동차 조형물이 변화무쌍한 색감과 모양으로 일본 전통 미지를 보여주며, 과거에서 현재로 빠른 시간 여행을 유도한다는 점이 호쿠사이의 작품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부악삼십육경'에서 볼 수 있는 파도와 배 등의 속도감은 자동차의 그것과 대단히 비슷하다. '부악삼십육경'은 후지산 인근의 36개 풍경을 표현한 판화 작품으로,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장승현 디렉터는 복잡한 물질로 이루어진 자동차가 연료를 태워가며 속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힘이 서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창작하는 순간 작품이 물질성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자동차 역시 인간에게 부여받은 정신으로 첨단 기술을 뛰어넘어 인간과 서로 교감을 나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자동차의 존재 의미를 고찰하며, 예술가의 심성으로 현대문명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나카무라 데쓰야의 조형물은 5m가 넘는데, 미끄러질 듯한 유선형의 형태와 매끈한 금속성의 표면은 정지된 조각에 속도감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BSSM 백순실미술관의 김은영 큐레이터는 속도를 낼 수 없는 조형물에 이미지의 속도를 오버랩시켜 가장 빠른 속도의 사물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더욱 속도감 있어 보이는 형태로 조형물을 업그레이드하는 나카무라 데쓰야는 현대인의 감각을 자극하는 21세기의 이미지와 경쟁하고 싶어 한다. 더욱 빠르게, 가장 빠른 것을 욕망하는 인간 문명의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다. 한편 클래식 카에서 영감을 얻는 이재일 작가의 작품은 자동차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재구성해 실재처럼 보이게 만든 포토리얼리즘 형태의 유희다.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 클래식 카는 제목에서부터 고가의 브랜드를 노출하며 보는 이들을 유혹한다. 첨단 기술의 상징인 자동차를 그려, 작가 자신이기도 한 21세기 젊은이들의 소유욕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리고 현대자동차

자동차라는 존재 자체를 넘어 브랜드에서 영감을 얻는 아티스트도 있다. 설치미술가 게리 유다와 사진작가 김용호가 바로 그들이다. 게리 유다는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 개최되는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Goodwood Festival of Speed)'에서 대형 조형물을 해마다 설치한다. 이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에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하며 신차 론칭 이벤트의 장소로 불린다. 게리 유다는 이 페스티벌의 공식 아티스트로 매년 메인 자동차 브랜드의 상징성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2012년에는 로터스, 2013년에는 포르세 911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전시했고, 올해는 메르세데스-벤츠가 모터 스포츠

에 참가한 지 1백2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고풍스러운 굿우드 하우스 지붕 위로 1백60톤의 철제 곡선이 드리워져, 뉴르부르크링 노르트슬라이페에서 우승한 1934년형 W25의 레플리카와 F1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이 몰았던 2013년형 W04가 위에 올라가 있는 형상이라 감탄을 자아냈다. 그의 작품은 자동차에서 영감을 얻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작품인 동시에 자동차를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에는 과연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 조형물이 설치될지 궁금해진다. <브릴리언트 마스터피스>전에서 선보인 사진작가 김용호의 작품은 상업 사진과 예술의 경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해체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서비스센터, 남양연구소, 아산 공장, 울산 공장에 이르기까지 촬영하며 현대자동차의 모든 시간을 담아내고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현대자동차의 기존 이미지 이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자동차를 포착했습니다." 초기에는 패션 사진과 광고 사진으로 유명세를 떨친 김용호 작가는 점차 순수 사진과 동영상, 설치 작품에 이르기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커머셜과 아트의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미술 평론가 이진수는 김용호의 작품은 처음부터 상업적 쓰임을 초월하려는 의도로 창작되었다고 말한다. 정지된 자동차의 정제된 라인이 만든 기하학적인 추상과 충격 테스트를 위해 수많은 자동차가 충돌하면서 남긴 벽과 바닥의 상처는 표현주의 그 자체다. 누가 이 아름다운 추상화를 충돌 테스트의 흔적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의 사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컴퍼니로 자리 잡은 현대자동차의 품격 있는 포트레이트가 담겨 있다. 게리 유다가 명품 브랜드의 위엄을 과시하는 규모 큰 조형물을 만들어 브랜드 파워를 과시한다면, 김용호는 자동차의 역사와 속도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자동차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며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김명곤 작가도 그런 애뜻한 감정을 작품에 투영하는 것이 분명한 듯 보인다. 그는 자동차에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 주로 꽃과 식물의 이미지를 자동차와 함께 표현하는 작가는 생명의 의미를 통해 인간애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한다. 자동차를 기계가 아닌 인간애의 상징으로 보며,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와 인간을 연결해 그 안에 꿈이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 체증을 묘사한 최근작에서도 일상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현대인의 힘찬 기운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미술가로서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달자로서의 책임감과 치료사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은 주로 즐거운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곳

1 브론즈로 만든 권오상의 '더 스킵프처 시리즈 중 한 작품인 '더 스킵프처 2'. 현재 공간 사육을 개조한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에 전시되어 있다. 2 매년 영국에서 열리는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 전시되었던 게리 유다의 작품, 재규어 브랜드에 한정하는 대형 조각 작품이다. 3 나카무라 데쓰야의 초기 작품 'Replica Custom GTR'. 우연히도 권오상 작가의 작품과 같은 색인 옐로우 컬러다. 4 김용호 작가의 작품은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 충돌 테스트 현장에서 촬영한 것. 충돌 테스트의 오랜 흔적이 마치 한 폭의 추상화처럼 보인다. 5 김명곤 작가의 유희 작품 '꿈을 싣고 가는 자동차'. 작가는 자동차에 인간애를 투영한다. 6 홍원석 작가의 '크리스마스의 악몽'. 얼핏 보면 사람스러운 색감의 작품이지만 자세히 보면 무사무사한 싱크홀이 둘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 정주현 작가의 '피터팬 시리즈'. 자동차의 일부를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시리즈다.



의 풍경을 하나로 만들고 그곳에 자동차와 꽃을 올려놓습니다. 단조로운 회색 거리에 컬러를 가미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지요." 작가는 현실의 풍경을 낮설게 해 상상 속의 거리와 풍경으로 바꾸는 데 매력을 느낀다. 존재하지 않는 풍경으로 낮설지 않은 내면의 세계를 만드는 것을 재미있어한다. 쇠라의 작품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작가는, 조각의 편린들이 모여 이루어진 캔버스가 쇠라의 색점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점은 매일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담아 작품을 만든다는 사실일 것이다. 꿈을 싣고 달리는 자동차 그림으로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 작가의 바람이다. 한편 홍원석 작가는 마치 생테쥐페리의 <야간 비행>과 같이 별들 사이를 헤매는 야간 운전 시리즈를 선보인다. 앰블런스 운전 경력에 있는 작가는 야간 운전이 녹록지 않은 삶의 어려움이 응축된 현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홍 작가의 그림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서글프고 막막해진다. 대리 운전, 트럭 운전, 총알 택시로 대변되는 야간 운전자의 어려운 현실을 초현실적이면서도 몽상적인 야경으로 표현했다. 색감이 밝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은 웬지 쓸쓸해 보인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에는 싱크홀이 등장하고, 때로는 번개가 치고, 우주선이 자동차를 쫓아 가기도 한다. 운전대를 잡으면 누구보다 고독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은 초현실적인 체험과 다름없다.

니케 여신 조각을 능가하다

박은영 큐레이터는 장재록, 정명국 작가처럼 구체적인 자동차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거나 프로타주(frottage)한 작품들은 감상자로 하여금 '자동차에 얽힌 수많은 상징적, 문화적 상상을 축출할 수도 있다고 평한다. 오히려 정해진 작가처럼 빛과 움직임의 소재로 한 조각 설치 작품이나 에드 루사의 작품과 같이 미국 특유의 로드무비를 연상시키는, 자동차, 에너지, 길, 자본주의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 21세기 자동차에 대한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인 정주현 작가의 '표면과 피터팬' 연작 역시 자동차 표면에서 출발한 순수 형태의 볼륨과 색채를 보여주며 호기심을 자아낸다. "폭음을 내며 질주하는 경주용 자동차가 사모트라케의 니케 여신 조각보다 더 아름답다." 1백 년 전 이탈리아의 시인 필리포 마리네티가 예찬한 것처럼, 2014년의 자동차 라인은 더욱 수려하고 컬러는 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기의 조각가 로맹이 살아 있다면 그 역시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아티스트의 시선으로 차를 바라본다면, 당장 운전대를 잡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것 같다. **NS**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된다), (서울, 구기봉 홀더의 저자)

사진: 아라리오갤러리, BSSM 백순실미술관, 표정미, 장재록, 홍원석, 이재일, 김용호, 권오상, 나카무라 데쓰야

Smooth as satin

더 부드럽고, 풍부한 보습력을 갖춘 보디 케어가 필요한 이때, 지갑을 열어도 아깝지 않을, 럭셔리 보디 제품만 모았다. 로션과 크림, 오일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울거울을 위한 보디 트리트먼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기원대부터 시계 방향으로) 달랑 라비어텔리자장 오일
달랑의 오일 라인인 브렌드와 동아라 할 정도로 마니아층이 깊고 있다. 울거울을 위해 새롭게 만든 이 제품은 마르부터 발끝까지 건조한 부위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알랑알랑, 로즈우드, 라벤더, 제라늄 등 고농축 에센셜 오일로 이루어져 이보다 효과도 겸비했다. 특히 각질이 많이 쌓인 팔꿈치와 발뒤꿈치를 마사지하면서 흡수시키면 달랑진 촉감이 느껴질 것. 50ml 6만 원대. 문의 02-3440-2706

결랑 골드 오가드 인베리얼 바디 크림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오가드와 오가드에서 추출한 진귀한 물로 이루어진 오가드 유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보디 트리트먼트. 알갱이처럼 유연한 텍스처는 바를 때마다 기분 좋은 경쾌함을 선사한다. 팔뚝, 팔꿈치 안쪽, 어깨, 데콜레타리 배와 다리까지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자란하면서 바르면 셀룰라이트를 예방하고 라인을 매끈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00ml 54만 원대. 문의 080-343-9500

리프레이 스킨 케어 리스 수플레 바디 크림 케어 가 노화된 피부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작은 용량이지만 같은 바쁜 이유는 케어 제품들이 그만큼 귀중한 소리, 때로는 수플레 질감을 연상케 하는 텍스처와 진한 케어 향이 인상적이며, 작은 양으로도 건조함이 충분히 해결될 만큼 영양분이 풍부하다. 150ml 40만 원대. 문의 080-511-6626

에스티 로더 라-뉴트리브 인테시브 스무딩 바디 크림 좋은 소재로 만든 옷이 맨살에 닿았을 때의 기분 좋은 감촉을 연상케 하는 고급스러운 보디 크림. 보습에 좋은 무루무루 바터와 시아바버, 글리세린이 주를 이루고, 예민한 피부를 위해 호호바와 알레이 시간 알코올을 담아 강력한 수분막을 씌워준다. 윤광이 커서 오랫동안 사용하게도 좋다. 300ml 20만 원대. 문의 02-3440-2772

라 메르 리페리티브 바디로션 라 메르의 보디 제품은 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자칫하면 만큼 명성이 드높다.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사랑받는 이 바디로션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청정 해안에서 1년에 단 두 번만 추출하는 브렌드의 목보존인 핵심 성분, 미라클 보르스를 담아 균형이 무너진 보디 피부를 회복시킨다. 보디 전체에 원을 그리는 듯한 동작으로 바르면 더욱 효과적이다. 200ml 20만 원대. 문의 02-3440-2653

샤넬 N5 바디 크림 여성들에게 우아함과 관능미를 선사해준 샤넬의 N5 컬렉션이 이번 홀리데이 시즌을 위해 향수를 비롯해 파우더와 보디 제품을 내놓았다. 그중 상징적인 페가제의 바디 크림은 크리미한 텍스처와 은은하게 감도는 향이 매력적이다. 150g 12만 원대. 문의 080-332-2700

조 알론 란인 우드 세이지 앤 시 솔트 바디 크림 향수 브랜드답게 무궁을 열지 않아 풍부한 우디 향이 퍼지는 향수 바디 크림. 향뿐만 아니라 코코아 바터와 스위트 이몬드 등 유연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보습보통한 피부를 만든다. 다음 단계에 향수를 바르면 향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은 물론 지속력도 2배 이상 길어진다. 175ml 11만 원대. 문의 02-3440-2562

산타 미리아 노벨라 올리오 코스메티코 푸른색 액체 가 독특한 인상을 주는 이 제품은 무성한 피부를 매끄럽게 코팅하는 보디 오일, 리치한 보디 크림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건성 피부도 이 제품 하나로 충분할 정도로 고농축 오일이다. 몸에 바르는 즉시 흡수되어 바로 옷을 입어도 부담이 없다. 250ml 13만 원대. 문의 02-546-1612 에디터 **이예진**



paradise redefined
BOUNDLESS BEAUTY, ULTIMATE LUXURY,
TREASURED MEMORIES

Finolhu Villas
LE LUXE
by Club Med

2015. 2. Grand Open

www.clubmed.co.kr | 02.3452.0123

두 개의 골프장을 오롯이 담아내다

바람이 찾아 드는 언덕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 올려
앞으로는 용평G.C., 뒤로는 버치힐G.C.의 조망이 가능한 곳
대관령 맑디 맑은 자연설과 자작나무가 전하는 산소 테라피까지
용평리조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용평리조트 버치힐 테라스 레지던스입니다

극히 소수의 선택되신 분들을 모십니다.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회원모집문의 02.3270.1260~1



Unique passion

나무, 대리석, 옻칠, 깃털, 운석.
패션 하우스가 커스텀 주얼리에
도입하는 소재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와 한 의

오늘날 패션 하우스의 주얼리는 더 이상 엔트리 아이템에만 머물지 않는다. 컬렉션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가 하면 아떨 때는 키 룩보다도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번 시즌이 바로 그렇다. 셀린느와 루이 비통, 이자벨 미랑 등의 쇼에서 한쪽에 드러난 싱글 이어링은 메가 히트를 치며 미니멀한 룩에 방점을 찍었다. 그뿐 아니라 발망의 오버사이즈 후프 이어링, 플로에의 칠링거리는 프리지 브레이슬릿, 펜디의 모피 이어커프, 토즈의 대리석 밴글 등 디자인과 소재의 변신이 두드러지는 주얼리가 란웨이로 휩쓸었다. 두꺼운 밴글과 진주 네크리스, 체인 브레이슬릿 등 패션 주얼리 하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던 뻘뻘 디자인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기발한 소재와 아이디어가 단연 눈에 띈다. 가장 많은 소재의 결합을 보여준 펜디는 광물, 천연 아게이드 크리스탈, 모피를 결합한 유기적인 형태의 주얼리를 완성했다. 깃털을 길게 드리운 이어커프, 모피가 복슬거리는 밴글, 머더오브벌 반지 등은 펜디의 미래주의와 아우라 저력을 극대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셈. 토즈는 마틴오폴 패턴이 반복되는 가죽 옷을 닮은 밴글과 링에 대리석을 담아 고급스럽게 표현했으며, 홀드온 커스텀 주얼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여온 디올은 이번 시즌 나무라는 소재에 크리스탈을 도입한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시선 끌기에 성공했다. 운석과 옻칠, 블랙 크리스탈 등으로 전문 주얼리 하우스 못지않게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 지방이나 상으로 만든 반지와 네크리스를 선보인 알렉산더 맥퀸, 이브 생 로랑 시절 아티 란으로 쓸쓸한 재기를 찾던 생 로랑은 볼드한 수정 링을 만들어 제의 시그니처 주얼리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한편 페라기오는 평범한 메탈 소재를 얇게 자르고 구부리고 붙이는 기법을 더해 구조적인 형태감을 강조한 주얼리를 쇼에 등장시켰다. 그동안 실버, 옻칠, 유색석 등 작고 조소한(?) 디자인만 선보여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획기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정교하고 혁신적인 소재로 진화하는 커스텀 주얼리의 반가운 변신을 우리는 그저 즐기만 하면 될 듯. **에디터 이예진**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깨진 부분과 거친 표면이 그대로 살아 있는 운석 네크리스 80만원대 **지형시**, 손가락 위에서 존재감을 더하는 볼드한 수정 반지 70만원대 **생로랑**, 천연 아게이드 크리스탈에 깃털을 장식한 싱글 귀고리 각 69만원, 72만원 모두 **펜디**, 그 위에 놓인, 홀스병에서 영감을 얻은 형태에 빈티지 로즈 컬러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사용한 밴글 2백만원대 **구찌**, 2015 S/S 란웨이에서 선보인 레트로풍 귀고리, 아메달드의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프라다**, 두 손가락에 끼는 반지와 아래 놓인 같은 라인의 밴글은 모두 가격 미정 **페라기오**, 평범한 메탈 소재를 구부리고 카팅하고 재조합한 구조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블랙 옻칠과 메달이 조화를 이루는 갈고리 형태의 싱글 이어링 70만원대 **지형시**, 대리석과 옻칠 장식 밴글 72만원 **펜디**, 특별한 가공법을 거친 나무 펜던트에 크리스탈을 배치한 독특한 조합이 눈에 띄는 네크리스 3백만원대 **디올**, 이번 시즌 토즈를 대변하는 패턴을 대리석과 메달로 구현한 링 각 1백20만원대, 50만원대 모두 **토즈**.

생로랑 02-549-5741 펜디 02-2056-9022 구찌 1577-1921 프라다 02-3218-5331 페라기오 02-3430-7854 디올 02-513-3232 지형시 02-517-7560 토즈 02-3438-6008

눈부신 아름다움에 강인함까지 더했다 링컨의 전혀 새로운 SUV Lincoln MKC.

동급 중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243 마력을 자랑하는 EcoBoost® I-4 엔진과 소음을 막아주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술은 당신의 드라이빙에 끝없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전국 링컨 전시장에서 사상 최초의 링컨 MKC를 경험하세요

Lincoln-Korea.com



직접 찾아가는 프리미엄 서비스

링컨 '픽업&딜리버리'

2015년형 링컨 모델의 정기 점검 시 3년 간 매년 2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신사 02)3444-13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임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청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링컨MKC: 배기량(cc) 1,999 공차중량(kg) 1865 저속6단 복합연비(km/L) 9.0 도심연비(km/L) 7.8 고속도로연비(km/L) 11.0 5등급 복합CO2 배출량(g/km) 198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080-300-3673 02)517-4357 ※전국 27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Modern Chic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볼드한 진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체인 네크리스 32만5천원,
 배려적인 버건디 컬러의 송치 슬림은
 69만5천원, 블랙 송치와 브론즈
 메탈 장식의 조화가 세련된 미니
 슬더백 1백15만원, 골드 바를
 매지한 송치 핑클 19만5천원
 모두 랑방 컬렉션.



Gentle Women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중성적인 디자인에 화려한 주얼
 장식을 매지한 블랙 로퍼 62만5천원,
 약어가죽의 텍스처를 살린 럭셔리한
 체인 슬더백 78만5천원,
 흑진주와 메탈 크리스탈로
 개성 있는 원형 반지들을 완성한
 네크리스 37만5천원
 모두 랑방 컬렉션.



holiday Chic

특유의 모던하고 우아한 실루엣과 섬세한 디테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랑방 컬렉션. 이번 시즌, 랑방 컬렉션만의 감성적인
 터치를 더한 액세서리 컬렉션으로 글래머러스하고 유행 있는
 홀리데이 룩을 즐겨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Witty & Unique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퍼와 리본, 진주로 장식한
 유연한 곡선 디테일이 눈에 띄는
 스트랩 클러치 69만5천원, 부엌이
 일러스트를 스텀치 장식으로 표현해
 개성을 살린 슬러치 64만5천원, 세
 줄의 진주가 화려한 체인 네크리스
 42만5천원, 다양한 스톤으로
 부엌이 모티브를 완성한
 브로치 29만5천원
 모두 랑방 컬렉션.



Glam Luxury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플하면서도 세시한 라인을 자랑하는 블랙 스티레토 힐 49만5천원, 화이트 크리스탈로 화려함을
 극대화한 체인 네크리스 39만5천원, 유니크한 바글 장식과 약어가죽 텍스처가 돋보이는 토트 겸용 슬더백 1백15만원,
 모호한 빛의 크리스탈을 더한 브론즈 리본 네크리스 34만5천원 모두 랑방 컬렉션. 문의 02-3416-4396 에디터 권유진



FULL-TIME HOLIDAYS
 Season Special
 가로수길 3446-9401 롯데월드몰 3213-4744



swatch[®]



a rose, Reborn

세계적인 럭셔리 남성복 브랜드, 에르메네지모 제나와 한국 영화계의 거장 박찬욱 감독이 함께 제작한 단편영화 (a rose, reborn)의 완결편이 글로벌 패션의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드디어 공개됐다. 글로벌한 협업으로 화제가 된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한 송이 장미가 우아하게 피어오르는 순간과 그 현장의 열기를 마주했다.

기대와 열기 속에 피어오른 한 송이 장미

행사장의 어두운 조명 아래 빛을 발하며 피어오른 달걀 모티브 속 한 송이의 장미,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보일 듯 말 듯 배쳐있던 존재감이 드러나는 에르메네지모 제나의 의상들. 지난 10월 22일, 에르메네지모 제나의 특별한 단편영화 (a rose, reborn)의 최종편을 공개한 상하이 패션 위크의 폐막식 현장. 그 이벤트가 개최된 상하이 엑시비션 센터(Shanghai Exhibition Center)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수께끼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듯 미스터리하면서 우아한 공간으로 재탄생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제나의 감성을 담은 아름다운 공간에 대해 탄성을 자아내며 동시에 기대와 흥분으로 들쭉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난 9월부터 온라인 미니 사이트에서 총 3편의 에피소드를 순차적으로 상영한 필름의 완결편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이를 제작한 한국 영화계의 거장 박찬욱 감독과 에르메네지모 제나 꾸뛰르 컬렉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테파노 필라티(Stefano Pilati)가 직접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이기도 했다. 메이저 잡지의 패션 기자들조차 대면 인터뷰를 하기가 어렵고, 공식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아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든 미스터리한 천재 디자이너 스테파노 필라티가 과연 상하이 컨퍼런스 현장에 '진짜로' 등장할지 여부는 이날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런 그가 감독 박찬욱, 배우 다니엘 우와 함께 컨퍼런스 홀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박수와 환호성이 절로 터져 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첫 아시안 행사 참석은 이번 프로젝트가 그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였을, 그리고 박찬욱 감독과 쌓은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유명 감독일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우리에게 친숙한 박찬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기에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금기를 깨는 과감한 발상과 사적이고 아름다운 영상미, 전혀 다른 감각과 화법으로 그 어떤 한국의 연출가보다 강력한 예술적 파워를 지닌 그의 역량은 제나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찬욱은 그가 지난 동안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암 문화를 배경으로 한 제나의 비전을 선입견 없이 통찰력과 창의성을 갖춘 유일한 감독이었고, 그는 이를 이번 영화를 통해 실현시켰다. 두 거장의 섬세하고 창조적인 디렉팅으로 탄생한 (a rose, reborn)은 영화와 패션을 접목한 상업 패션 필름도, 박찬욱 감독과 제나의 명성을 조화한 단순 과시성 콘텐츠도 아닌 두루 주목할 만하다. 이는 예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제나가 선보인 새로운 캠페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영상과 우아하고 철학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브랜드의 콘셉트와 철학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킨다. 상하이 패션 위크의 폐막 이벤트를 리웨이 아닌 영화제로 꾸민 연유 역시, 그만큼 이 영화에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제나의 브랜드 철학과 브랜드가 추구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고찰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녹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한 협업이 이루어낸 한 편의 예술영화

세계적인 거장들의 글로벌 협업으로 제작 전부터 이슈가 된 (a rose, reborn) 프로젝트는 앞에서 언급했듯 뛰어난 영상미와 스토리텔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한국의 박찬욱을 감독으로, 영국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 잭 휴스턴(Jack Huston)과 중화권 인기 스타 다니엘 우(Daniel Wu)를 주연 배우로 선정했다. 박찬욱 감독과 함께 일 본 시나리오 작가 후지타니 아이코(Fujitani Ayako), 한국 시나리오 작가 장정훈이 시나리오를 작업해 스텝일과 가족적인 면에서 풍부함을 더했다. 여기에 디자이너 스테파노 필라티의 창조적인 디렉팅에 따라 영화의 모든 의상은 제나 컬렉션으로 준비되었다. 이외에도 영국 작곡가 클린트 맨셀(Clint Mansell)과 아르헨티나 촬영감독 나타샤 브라이어(Natasha Braier)가 참여해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말 그대로 '글로벌한 스케일'이다. 창의적인 협업이 중시되는 요즘, 각 분야의 최고 자리를 거머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상상 그 이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발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서로 다른 강한 개성을 지닌 크리에이티브들이 모여 한 편의 예술 영화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찬욱 감독은 "(a rose, reborn) 프로젝트 팀은 협업이 준비된 팀이었다. 언어 장벽은 문제되지 않았다. 특히 스테파노 필라티와는 굉장히 긴 전화 회의를 하며 생각을 공유했다. 필라티 쇼 영상에서 받은 영감과 제나에서 1백여 년 넘게 기원된 전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아 이를 스토리에 녹여내려고 노력했다." 이어서 배우 다니엘 우는 컨퍼런스에서 "보통 패션 브랜드에서 제작하는 영화는 유명한 감독과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동원되지만 정작 스토리와 철학과는 관련이 없다. 이번 프로젝트는 영화 스토리와 제나의 철학을 파악해 있게 연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다"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모두에게 이 프로젝트는 제나의 의상이 여러 문화를 아우르듯, 협업에서도 모든 장애물과 장벽이 허물어진 흥미로운 작업이었던 셈이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십

에르메네지모 제나가 이 영화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The new leadership generation-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십'이다. 이 주제는 디자이너 스테파노 필라티가 제나에 합류한 이후 2014 S/S와 F/W 두 시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광고 캠페인에도 일맥상통한다. 영화는 주인공 스텝이 평범한 리더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진정한 리더로 변모하는 과정을 섬세하고 우아한 기법으로 서술한다. 자기 자신만 알던 스텝이 신기술인 '에코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미스터 루'를 만나러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거머쥔 타인의 속도 눈여겨볼 줄 아는 새로운 리더로 거듭나는 것.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은 두 주인공이 서로의 웃을 바꿔 입는 행위다. 같은 듯 다른 재킷과 팬츠, 타이틀 바꾸어 입으며 점차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스텝의 모습은 제나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타일링 방법인 '브로큰 수트(broken suit)'에서 영감을 받았다. 언뜻 보면 한 벌이지만 재킷, 팬츠, 베스트까지 모두 다른 원단을 사용한 브로큰 수트는 영화 속 주인공이 나라를 겹겹을 깨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자 이 영화의 출발점이다. 옷이 조화로우면서도 하나의 방법론, 영화 (a rose, reborn)은 한 사람이 주위를 돌아보며 조화를 이뤄나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한데 어울리도록 한 브로큰 수트처럼 말이다. 비록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단편영화지만 그 속엔 많은 의미와 상징을 담았기에 깊이가 느껴진다. 브로큰 수트를 가까이에서 보아야 그 차이와 세련된 진가를 알 수 있듯이 보다 자세히, 집중해서 이 여정에 주목한다면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본편과 감독, 배우들의 인터뷰, 비하인드 영상은 에르메네지모 제나의 온라인 공식 사이트는 물론 영화 미니 사이트(www.rose-reborn.com)에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에디터 권유진 상하이 현지 취재



1 에르메네지모 제나의 단편영화 (a rose, reborn)의 완결편이 글로벌 패션의 중심지, 상하이에서 공개되었다. 2 감독 박찬욱, 제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테파노 필라티, 배우 다니엘 우가 참석한 컨퍼런스 현장. 3 달걀 모티브 속 한 송이 장미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처럼 제나의 행사장은 미스터리하면서 우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4 제나의 브로큰 수트를 맞춰 스텝 스테파노 필라티와 박찬욱, 박찬욱 감독의 의상은 스테파노 필라티가 직접 스타일링했다. 5, 6 영화 (a rose, reborn) 제작 현장.



올 겨울엔,
산타보다 캐논~!

캐논
Sorry! Santa
페스티벌

2014. 11. 21부터
2015. 01. 11까지

행사기간 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정품등록을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캐논이 산타보다 뽕뽕한 선물을 드립니다
▶ 대상 제품 : EOS 70D, 700D, 100D (화이트&블랙) ▶ 경품 내용 : 위닉스 에어워셔, 에이스 아이코니아 태블릿, 정품 배터리 중 택 1
※ 정확한 행사제품 및 행사내용은 홈페이지(www.canon-ci.co.kr) 참조 ※ 에어워셔와 태블릿은 총 10,000대 선착순 한정, 한정수량 종료 시 배터리로 대체됩니다

2014 Art+Film Gala



아티스트인 바버라 크루거(Barbara Kruger)와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 감독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LACMA의 네 번째 2014 아트+필름 갈라(ART+FILM GALA) 디너는 수많은 스타와 아티스트, 그리고 전 세계 미디어가 참석한 화려한 축제였다. 예술적인 감성과 할리우드의 상상력이 만나는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한 이 행사는 아직 짧은 역사에도 전 세계 아티스트들에게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예술의 창구로서 주목받고 있다.



1 LA 카운티 뮤지엄이 지난 11월 1일 LACMA 코트야드에서 개최한 2014 아트+필름 갈라가 약 4백만 달러를 모금하여 상향리에 공했다. 붉은 조명과 아저수가 어우러진 행사장 앞쪽 전경. 2 올해의 공로자로 선정된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3 LA의 예술계, 영화계, 패션계, 사교계 인사들이 모인 2014 아트+필름 갈라 디너 현장. 4 가장 주목받은 셀브라티는 LACMA의 후원사인 구찌의 모기업 케링 그룹의 회장 프랑수아즈 앙리 파노와 결혼한 여배우 셀마 헤이맥 파노. 셀마 헤이맥은 크리스탈 장식의 구찌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5 2014 아트+필름 갈라 디너의 호스트인 마이클 고번, 후원사인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리다 지아니니, LACMA의 이사이자 또 한 명의 호스트인 에바 차우, 올해의 공로자로 선정된 바버라 크루거와 쿠엔틴 타란티노.



예술, 영화, 패션, 사교계를 아우르는 LA의 가장 빛나는 밤
 지난 11월 1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이하 LACMA)에서는 네 번째 아트 + 필름 갈라를 선보였다.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와 아티스트 바버라 크루거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이번 갈라 이벤트는 LACMA의 이사 에바 차우(Eva Chow)와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Leonardo DiCaprio)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리다 지아니니(Frida Gianini)가 갈라 주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LACMA의 CEO이자 월리스 안넨버그(Wallis Annenberg)의 디렉터, 마이클 고번(Michael Govan)의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는 화려하지만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마이클 고번은 "LACMA야말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예술과 영화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아카데미 및 필름 인디펜던트와의 협력하여 8개의 필름 전시를 선보였으며,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와 영화 제작자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바버라 크루거와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업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잊혀지지, 결코 잊을 수도 없는 이미지를 창조해낸 주인공입니다"라고 말했다. LACMA의 디렉터 마이클 고번은 'New York's Dia Art Museum'의 디렉터였으며, LACMA 관장으로 부임한 이래 LACMA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예술을 뛰어넘는 다양한 아이템에 투자하고 있으며 요즘은 영화로 그 영역을 넓혔다.
 갈라 디너의 또 한 명의 호스트이자 공동 주최자인 에바 차우는 다음과 같이 감상을 밝혔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이번 이벤트를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트+필름 갈라는 이제 전 세계 창작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선보이는 가장 근사한 이벤트가 되었으며, 대중이 예술과 영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LACMA의 노력이 일군 결실입니다. 아트+필름 갈라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구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ACMA의 이사이자 LACMA 아트+필름 갈라의 공동 주최자인 에바 차우는 처음엔 패션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쌓았다. 마이클 차우와 1992년 결혼한 이후,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떠나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 '미스터 차우'로 경력을 넓혀갔다. 오늘날 에바는 전 세계에 미스터 차우 레스토랑을 론칭하는 데 전념하는 동시에 주얼리 라인을 선보이며 직접 디자인하고 있다. 또 예술과 가구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과 컬래버레이션하며 패션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아니라 뉴욕 예술 아카데미, 칠드런즈 액션 네트워크와 같은 자선 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편 LACMA를 후원하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

리다 지아니니는 "예술과 영화계 거장들을 기리고자 한 LACMA의 전적인 헌신은 구찌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LACMA만의 독특한 비전을 후원하며 4년째 에바 차우, 마이클 고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진정한 혁신가이자 영감을 주는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바버라 크루거와 쿠엔틴 타란티노의 공로를 함께 기릴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에 선정된 아티스트, 바버라 크루거는 미국의 개념주의 예술가이며 사진작가인 동시에 페미니즘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사진과 텍스트를 결합하는 독특한 예술 형식을 통해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과 사회제도적 권력에 항거했으며 특히 남성 지배 구조하의 사회적 편견에 저항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아티스트로 알려졌다. 또 한 명의 수상자 쿠엔틴 타란티노는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 출신의 할리우드 영화감독. 영화 <저수지의 개들>로 성공을 거두며 이후 <펄프 픽션>으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로 존 트라볼타를 재기시켰으며 이후 <포 룬>, <황혼에서 새벽까지>, <재키 브라운>, <킬 빌>, <사스터즈> 등의 작품을 만들었다. LACMA 갈라 디너는 쿠엔틴 타란티노와 바버라 크루거를 기리기 위해 두 사람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레드 컬러로 꾸며졌으며, 1980년대의 전설적인 영국 4인조 그룹 컬처 클럽(Culture Club)의 공연이 특별한 밤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이날 밤 디너에는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한 수많은 명사가 구찌 옷을 입고 참석해 보는 이들에게 밤하늘의 별보다 빛나는 화려한 시간을 선사했다. 갈라 디너의 수익금은 박물관의 큐레이터 프로그램,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 영화로 영역을 넓히는 LACMA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1965년 설립된 이후, LACMA는 영화 예술 산업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 역사와 지리적인 요인을 아우르는 예술 작품을 선보여왔다. 오늘날 박물관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미국 등 다양한 지역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던 아트 전시의 장이 되어왔다. 점점 증대되고 있는 모던 아트 소장품의 규모와 함께, 아티스트들과의 혁신적인 콜래보레이션도 계속되고 있으며, 트랜스퍼메이션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LACMA는 풍부한 컬렉션과 함께 현대사회를 조명하는 진정한 창이 되고 있다.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겨울휴가 BIG BONUS 3

성인 127만원대부터 에어패키지(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SUN 리조트 : 발리, 푸켓, 체러팅, 빈탄, 카비라, 계림, 몰디브 카니
 SNOW 리조트 : 일본 홋카이도, 중국 야블리

출발일 : 2014년 12월 1일 ~ 2015년 4월 28일 예약마감 : 2014년 12월 31일
 객실 상황 및 유가 변동으로 상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2 3452 0123
 www.clubmed.co.kr
 f /clubmedkorea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

- ▣ 왕복 항공권 및 공항 클럽메드간 교통편
- ▣ 일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 ▣ 고가격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 ▣ 인력한 객실
- ▣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 ▣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 및 강습
- ▣ 곤돌라, 리프트권 및 스키, 보드 강습 (SNOW 리조트)

beyond the time

한국 문화의 숨겨진 가치를 우아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한 여배우 이영애가 운현궁에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함께 보낸 따사로운 오후,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한국 문화유산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하게 해주신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구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봄 밤, 이렇게 운현궁에서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더욱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 같은 곳들 외에도, 우리 선조는 소중한 유산을 많이 물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지만 조상의 일이 담긴 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 제가 누려 온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계속 지켜나갈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홍보대사로서, 또 우리 문화유산 지킴이로서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2013년 NTK 발족식에서 여배우 이영애의 축사

지난 11월, 여배우 이영애가 종로구에 위치한 운현궁(雲峴宮, 사적 제257호)을 찾았다.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현궁은 조선 26대 임금 고종이 출생해서 12세까지 머물던 곳이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발족식이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이영애가 운현궁을 찾은 것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홍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Korea, 이하 NTK)는 정부에서 미처 손을 쓰기 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을 시민의 힘으로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영국에서 1895년에 출범해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국가 소유가 아닌 ‘시민의 유산’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정부의 간섭이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순수 비영리 민간 운동이며, NTK는 지난 2000년 출범해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기부·증여를 통해 보존 가치 있는 문화 자산과 자연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정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최순우 옛집’, ‘동강 제장마을’, ‘나주 도래마을 옛집’ 등을 시민 유산으로 보존·관리 중이다. 이렇듯 지극히 한국적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나선 것은 화려한 패션으로 대중에게 각인된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구찌 코리아다.

지난 2012년 4월 23일 한국을 방문한 구찌 CEO 파트리izio 디 마르코(Patrizio di Marco)는 NTK 활동이 과거를 존중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Forever Now’라는 브랜드 경영 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판단 아래, 매년 1억원씩 5년간 총 5억원의 NTK 후원을 통해 소실될 위기에 처한 한국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자산 확보와 관리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구찌의 멋진 약속에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자 행보를 같이한 이가 바로 배우 이영애다. 그녀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NTK의 공식 홍보대사가 전무한 상황 속에서 2013년부터 홍보대사 활동이라는 재능 기부를 통해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문화유산’이라는 캠페인의 발족과 함께 NTK의 뜻깊은 문화유산 보전 활동을 더욱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13년 6월 발족한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실될 위험에 처해 있거나 문화적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문화유산을 웹사이트(www.loveculture.kr)를 통해 알림으로써 응모할 수 있다. NTK는 추천된 후보군의 학술·문화·역사적 가치에 대한 정밀 검토와 전문가 현장 조사 등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보전지를 발표한다.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의 추천 보전 대상은 전통 마을과 가옥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역사 문화유산,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요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이나 저명인사의 출생·거주지, 역사적 장소와 건축물, 1백 년 후 미래의 유산으로 보전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문화유산이다.

NTK가 선정한 장소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빛을 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최우수상 격인 ‘나의 사랑 문화유산’상에 ‘함평자팡어린’이집이 선정된 바 있다. ‘함평자팡어린’이집은 1958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평에 지은 건물로, 물자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건축되었음에도 세련된 건축적 완성도를 자랑한다. 그 뿐 아니라 고아원에서 출발해 어린이집, 한 부모 다문화 가정의 보금자리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 가족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뜻깊은 장소다. 그렇다면 이영애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을 펼친 지 벌써 2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애정을 가지고 의미를 다시 새겼던 공간들이 모두 새롭게 탄생했거든요. 운현궁에서 화보를 찍은 것 역시 초심을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찾은 운현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멋진 장소들이 더 오래도록 보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늦가을이지만 따사로운 오후의 햇볕 속에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배우 이영애의 아름다움이 구찌 2015 크루즈 컬렉션과 조우했다. 문화유산 보전 활동의 중요성과 홍보대사로서의 긍지를 가슴에 새긴 이영애가 운현궁에서 보낸 그림 같은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갈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캐나다 화가 크리스 나이트(Kris Knight)가 구찌의 아이코닉 플로라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프린트의 드레스, 구찌의 아이코닉 뱀무 클로지가 돋보이는 그레이 컬러의 ‘뱀무 데일리’ 미니 핸드백, ‘릴리안’ 타이론 부츠 모두 구찌.



내추럴 화이트 컬러의 투 버튼 블레이저,
플로라 나이트(Flora Knight) 프린팅의
다스티 블루 컬러 드레스, 홀스빗 장식의
'일리아' 옐로 파이프 부츠, 파스텔
블루 컬러의 포스 텍 웨어 모두 구찌.



내추럴 화이트 컬러 하프 코트와
헤이븐 스퀘어스, 반부 산들의
파스텔 핑크 컬러 미니 '레오 디
라', '터스티' 핑크 컬러의 인코
이브닝 버 모두 구찌.

파스텔 옐로 톤의 하프 코트와 화이트 슬렉스, 뽕나무 클로저가 돋보이는 캐주얼 칼라의 '뽕부 색' 모두 구찌.

파이톤 칼라 장식 디테일의 실크 드레스와 그레이 칼라의 '뽕부 데일리' 클러치 모두 구찌.



내추럴 화이트 컬러의 투 버튼 코트
블레이저와 화이트 슬랙스, 플라워
크리스탈 장식의 스트라이프 니트,
화이트 컬러의 '뱀부 데일리' 슬더백과
'릴리안' 홀스빗 장식 부티, 애플 그린
컬러의 링크 이브닝 퍼모두 꾸찌.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돌아보면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 우리가 찾아내서 의미를 부여해줄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Q 꾸찌와 한국내셔널트러스트(NTK)가 펼치고 있는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은 발족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직접 이런 활동에 참가하면서 어떤 점을 인상적으로 생각하셨는지요?

작년부터 꾸찌와 함께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에 함께하면서 느낀 점은, 문화재 보전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문화재인지 모르고 스쳐 지나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화유산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일전에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읽고 이봉창 의사에 대한 일화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생의 마지막 사진을 찍는 중에도 밝게 웃으며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키셨다는 일화가 인상적이었죠. 이봉창 의사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분으로 알려졌지만, 직계 후손도 없는 상황에서 의거하신 관계로, 그 누구도 보전하지 못한 생가는 오늘날 흔적도 없이 다세대 빌라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봉창 의사의 집터를 예시로 든 것은 소중한 역사 고층과 급격히 진행된 도시 개발은 시민 여러분과 제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방방곡곡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실될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이 많을 테지요.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돌아보면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 우리가 찾아내서 의미를 부여해줄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다소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그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캠페인은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그간 많은 장소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정되지 못한 장소에서도 문화유산을 찾아낸 기쁨에 환하게 미소 짓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소중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이 캠페인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4월에 제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을 발표했던 운현궁을 1년 반 만에 다시 찾아, 홍보대사로 처음 선정되었을 때 느낀 초심으로 돌아가 또 한 번 이 캠페인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Q 쓰러린 기억이든, 자랑스러운 기억이든 모두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의 최종 후원자로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의 유산이자 다문화 가정의 보금자리인 자랑스러운 집이 선정됐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도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도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실 계획이지요?

함평자광어린이집은 거기에 얽힌 스토리가 무척 안타까운 동시에,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 1등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반갑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배우 이영애의 아이들이

아닌, 다른 가정의 아이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 밖에 안 된 어린 나이이다 보니, 거창한 문화 교육보다는 집 근처에서 즐겁게 야외 활동을 하며 자연을 만끽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Q 이 캠페인을 통해 후원하는 문화유산을 선정하는 작업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점이 고무적으로 느껴지는데, 웹사이트와 SNS 같은 디지털 시대의 매개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혹은 자인이나 친구들과 사적으로 디지털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날로그 스타일이라 따로 디지털 소통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공식석상에 나서면 메체의 기사만큼 빠르게 블로거들의 포스팅이 올라온 할 때,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껴며 디지털 매체의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Q 사회 심리학의 대가인 에리히 프롬은 나누는 것은 안락이 아닌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나 사회단체만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자신의 재능이나 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나눔의 미학은 결국 스스로에게도 영혼의 자양분이 될 것이란 뜻일 텐데요. 직업적인 일 외에도 다양한 나눔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도 좋은 기회와 인연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무엇보다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서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살아갈 세상이 더 좋은 곳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눔 활동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는 데 시간을 들이려 노력하고 있어요.

Q 꾸찌라는 브랜드는 해외에서도 전통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기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찌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문화유산 보존 사업은 5년간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눔의 활동이 펼쳐졌으면 하고 바라는 점이 있는지요?

꾸찌와 함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는 나눔에 대한 생각과 실천 방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예요. 처음 꾸찌의 사회 환원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접한 것은 한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장학생들이 꾸찌의 후원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했다는 신문 기사였는데, 해외 패션 브랜드가 한국에서 이런 일들도 하는구나 하고 유난히 관심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나요. 꾸찌가 벌이고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보전 활동 역시, 이탈리아 브랜드가 한국의 문화유산에 이런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이 우선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고맙게 생각되는 일이지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문화유산을 찾아내고 알리는 것을 넘어, 그 유산이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기부금을 통해 자산으로 매입, 시민의 유산으로 확보하고 보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꾸찌, 제가 함께 한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으로 시민들이 직접 찾아낸 곳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유산이 되어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면 더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내추럴 화이트 컬러의 하프
코트와 화이트 & 레드 컬러의
스트라이프 울 니트, 닛 브라운
컬러 슬랙스, 울스킷 장식의
'릴리안' 파이론 부티와 뱀부 핸들
디테일의 화이트 컬러
'뱀부 데일리' 토트백 모두 구찌,
문의 1577-1921

헤어 조영재
메이크업 이지영
스타일 디렉터 이선희
인테리어 고성연
에디터 배마진

정교한 데일리링이 돋보이는 파이론
스킨 코트와 오렌지 컬러의 실크 드레스,
구찌의 아이코닉한 뱀부 클로저가
돋보이는 그레이 컬러 '뱀부 데일리'
라지 토트백 모두 구찌.





the value of Rarity

자연의 신비를 잉태한 결정체라고 불리는 보석 중에서도 '끝판왕'으로 통하는 다이아몬드. 영국의 그라프(Graff)는 '다이아몬드의 왕'이라 불리는 로렌스 그라프가 설립한 브랜드로, 희소한 원석과 최고의 보석 세공 장인들의 솜씨가 빛어낸 명작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라 호텔에 들어선 이래 그라프 살롱은 하이 주얼리 애호가들에게 엄청난 주목과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고혹적인 보석과 시계 컬렉션을 공개한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런던에서 날아온 작품들은 단지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빛난다고 하기엔 절정의 아름다움도 품고 있었다.

하이 주얼리가 대접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희소성 때문이다. 그 희소성에는 원석의 산출량, 보석 자체의 완성도와 가치, 장인 정신이 스며든 아름다운 세공, 브랜드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다. 모든 면에서 '희소함'의 궁극임을 자처하는 영국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컬렉션을 서울에서 전시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11월 중순 서울 신라 호텔 1층에 자리 잡은 그라프 살롱에서 열린 이 전시회를 위해 다이아몬드 가치로 1억1천만달러에 해당되는 진귀한 보석과 하이엔드 시계 등 60여 점의 작품이 런던에서 날아왔다. 런던에는 그라프의 모든 작품을 손으로 제작하는 브랜드 최대 규모의 공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유했던 명작을 다수 볼 수 있는 희소한 전시회인 셈이다. 특히 지난 9월 파리에서 열린 엔티크 비엔날레에 전시된 주얼리를 비롯해 5백50캐럿짜리 원석 '레즈엔 스타(Letseng Star)'에서 태어난 나비 브로치, 그라프의 상징과도 같은 클래식 버터플라이 컬렉션, 그리고 루비의 향연이 매혹적인 최상급 리듬 컬렉션, 주얼리 위치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한 눈부신 다이아몬드 시계 등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매혹적인 날갯짓, 여심을 훑치는 나비 소재의 다양한 컬렉션
화려하면서도 정갈한 기품이 느껴지는 브로치 중에서 단연 돋보인 작품은 현 세기에 발굴된 원석 중 두 번째로 크다는 레즈엔 스타에서 나온 33.11캐럿의 사양배 모양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섬세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버터플라이 브로치'. 이번에 아시아 최초로 전시됐다는 이 나비 브로치에는 총 86,42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사용됐다. "배(pear)를 닮은 모양 자체도 그렇지만 최상의 품질을 뜻하는 D컬러 FL의 33.11캐럿 다이아몬드는 매우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요." 이 전시회를 위해 홍콩에서 서울을 찾은 그라프 담당자 모니크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비는 그라프의 브랜드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상징적인 모티프다. 다이아몬드는 물론이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 다채로운 보석과 어울린 나비 디자인의 매력은 일품이다. 우아한 나비가 무리를 지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다는 '파베 버터플라이 컬렉션(Pavé Butterfly Collection)', 사랑스럽고 고아한 '클래식 버터플라이 컬렉션(Classic Butterfly Collection)', 다채로운 모양의 옐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한 마리 노랑나비의 생기 있는 파다

1 지난해 8월 서울 신라 호텔에 들어선 이래 하이 주얼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살롱 내부. 2 5백50캐럿짜리 희귀한 원석에서 나온 33.11캐럿의 사양배 모양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다이아몬드 버터플라이 브로치'. 3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리듬 컬렉션. 루비와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아름다운 선율을 연상시킨다. 4 화사한 꽃송이들 같은 다이아몬드 위치 '플러워 브라이슬릿 워치'. 5 손가락 위에 한 마리 노랑나비가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빈지 '옐로, 화이트 다이아몬드 버터플라이 링'. 6 정교한 스위스 무브먼트를 장착한 세련된 감각의 '마스터그라프 울트라 플랫 아이리온 스텐드백 투르비용'.

인을 손가락 위에 재현해낸 듯한 빈지 '옐로, 화이트 다이아몬드 버터플라이 링' 등 다양한 나비 소재의 컬렉션은 뜻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다이아몬드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세팅의 미학, 선율이 느껴지는 디자인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라프의 창업주 로렌스 그라프는 완벽한 세팅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라프의 디자인에는 때로는 수백 시간이 걸린다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음악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세팅의 미학을 보여주는 '리듬 컬렉션(Rhythm Collection)'도 큰 주목을 받았다. 국경을 초월하는 언어이자 시간을 넘어서는 매제인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컬렉션으로, 그라프의 마스터 장인들은 마치 열정적인 작곡가가 선율 하나하나에 열정을 불어넣듯이 작업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이 밖에 그라프가 최근 야심차게 부각하고 있는 각종 럭셔리 워치도 눈부신 볼거리였다. 뱀처럼 파리를 틀고 있는 모양새의 팔찌에 무릎을 열면 양증맞은 시계가 숨어 있는 '서펜타인 시크릿 워치(Serpentine Secret Watch)' 같은 황홀한 하이엔드 주얼리 위치를 비롯해 스위스에서 제작되는 정교한 무브먼트를 장착한 남성미 넘치는 세련된 다이아몬드 시계도 눈에 띄었다. 그라프의 모든 럭셔리 워치는 '인비저블 모자이크 세팅(Invisible Mosaic Setting)'이라는, 특허 받은 디자인 요소를 품고 있는데, 2개의 삼각형 다이아몬드 사이에 육각으로 커팅한 다이아몬드를 넣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질 리포베츠키는 "럭셔리란 사람의 재능을 통해 사물이 완벽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요즘 하이엔드 주얼리와 시계가 뿜어내는 미화적인 완성도와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메카니즘을 보고 있노라면 그러한 발언이 동감할 수밖에 없다. 문의 02-2256-6810 메타트 고영현



the new modern Bout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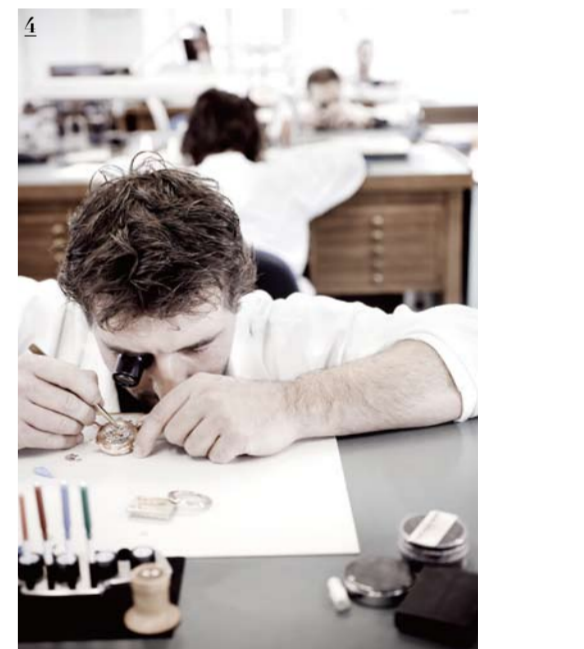
우아함의 대명사, 마스터 워치메이커 브랜드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의 새로운 부티크가 오픈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 럭셔리 위치 섹션에서 만나는, 클래식한 부티크에 살아 숨 쉬는 시계 장인의 가치를 경험해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백화점을 사로잡은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부티크

최근 백화점 명품관의 화두는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의 부티크를 유치하는 것이다. 품격 있는 매장을 유치할수록 백화점의 가치가 높아지고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본점점에 새롭게 매장을 오픈한 워치 브랜드 파르미지아니의 매장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마스터 워치메이커 브랜드 파르미지아니의 부티크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 럭셔리 위치 섹션에 오픈하며 주목받은 것.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라 부티크 전용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라이브러리, 오벌 형태의 쇼케이스는 물론 상층이까지 럭셔리한 브랜드 이미지가 고스란히 담긴 매장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부티크의 디스플레이는 브랜드의 품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컬러감이 돋보이는 세련 소재의 워치 스탠드와 골드 브라운으로 가득찬 인테리어는 이색적이기도 하다. 이곳을 채우고 있는 품격 있는 워치 컬렉션은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파르미지아니를 대표하는 톤다 1950 리진과 같은 베스트셀러는 물론 올해 신제품인 톤다메트로 컬렉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살아 있는 워치 마스터, 마힐 파르미지아니
파르미지아니라는 브랜드명 뒤에는 플러리에(fleurier)라는 특별한 단어가 뒤따르는데, 이는 시간을 움직이는 진정한 매뉴팩처 브랜드라는 의미다. 생존하는 워치메이커의 손길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브랜드인 만큼 그 역사도 남다르다. 전체적

인 시계 복원가인 마힐 파르미지아니는 지금도 세계업계에서 그 명성이 대단하다. 그가 1976년 마스터 워치메이커로서 자랑스럽게 선보인 브랜드 파르미지아니는 100% 인 하우스 매뉴팩처 원칙을 지켜가는 자부심으로 그 어떤 회사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디자인과 기술력을 선보이기에 마니아층이 탄탄하다. 시계를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다양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경험해본 고객층이 주로 찾는다. 파르미지아니는 1990년대 말부터 부가티, 30초 투르비용, 웨스트민스터, 퍼페추얼 캘린더와 투르비용 동시 장착, 토릭 컬렉터 등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헤이스프링과 케이스를 자체 개발했다. 이에 현재 파르미지아니의 대주주인 산도스 재단은 파르미지아니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파르미지아니는 현존하는 마스터 워치메이커의 역량과 희소성, 독창성 있는 디자인까지 갖추어 최상위 퀄리티를 위한 100% 매뉴팩처라 인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중 파르미지아니의 대표 워치인 톤다 1950(Tonda 1950)은 케이스 두께가 7.80mm에 불과하지만 파르미지아니만의 시계 측면을 시그니처로 만들기 위해 4개의 리그를 별도로 만들어 케이스에 부착하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 무엇보다 착용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다. 시·분·초의 주요 기능만 탑재해 가독성을 높인 가장 클래식하고 우아한 파르미지아니의 스테디셀러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파르미지아니 톤다 메트로는 홍콩, 뉴욕 등 대도시의 화려함과 활동적인 모습을 모티브로 탄생한 새로운 컬렉션이다. 새롭게 제작한 인 하우스 무브먼트 PF315를 적용해 정밀하고 슬림하다. 독특한 비대칭 리그가 돋보이며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과 옹두, 리그 등 세 가지 요소가 우아하게 어우러져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착용감도 뛰어나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시계를 여유롭게 둘러보고 싶은 시계 마니아라면 새롭게 오픈한 파르미지아니 매장에 발걸음 해 보기를 권한다. 새로운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선사한다. 문의 02-310-1737 메타트 배지민



1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아 아름다운 부티크가 완성되었다. 2, 3 톤다 1950과 무브먼트 PF 701. 4 파르미지아니는 인 하우스에서 모든 부품을 직접 제작한다. 5 파르미지아니 워치숍 전경. 6 여성을 위한 톤다 메트로플러인.



Modern & Intellectual
2009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인 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행진음 이어가고 있다. 감귤류를 중심으로 한 향조에 레몬, 토이 조화를 이루는 시트러스 우디 계열의 향수로, 시트러스의 싱콤함과 우디의 텍스처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손으로 짠 등, 무로 이루어진 보틀은 아티산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75ml 8만2천원, 125ml 11만3천원. **존 바바토스 아티산**



Stylish & Sexy
가운뎃세대에 생애 최고 대단한 매력을 더한 아티산 블랙은 TPO에 따라 향수를 쓸 정도로 세련된 감각을 지닌 도사남에게 잘 어울린다. 골과 맨저, 오렌지로 이루어진 시트러스 트리오의 활기찬 향을 유지하면서 파슬리와 가죽이 강렬하면서도 색다른 남성미를 강조한다. 75ml 8만2천원, 125ml 11만3천원. **존 바바토스 아티산 블랙**

his Scent

장인 정신을 근간으로 한 정교한 테일러링, 혁신적인 소재, 로큰롤 감성 등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독창적인 패션 세계를 구축해온 존 바바토스, 브랜드의 자유분방한 남성성을 그대로 담은 향수는 베스트 남자 향수 리스트 상위에 늘 올라 있을 만큼 매력적이다. 존 바바토스의 모방할 수 없는 향의 세계에 취해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harismatic & Gentleman
가장 최근에 출시한 빈티지는 관능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유려하면서도 정제된 향수다. 감귤향 스페이스와 레더 향에 우아한 오코모스와 파슬리가 대조를 이루는 깊은 향은 기존 존 바바토스 제품보다 훨씬 따뜻하고 무게감이 느껴진다. 윤기가 흐르는 포명한 테일러링 수트와 드레스 슈즈를 갖춰 신은 코바트 다운니 주니어가 인상적이고 활기. 75ml 8만2천원, 125ml 11만3천원. **존 바바토스 빈티지**



Elegant & Leisurable
포명한 컬러가 살짝 내비치도록 노르모로 등성등성 한 보틀에서 느껴져서 여유로움이 묻어내는 아티산 아쿠아는 뉴트럴 컬러의 니트와 자유로운 옷차림에 어울릴 만한 향수다. 싱그러움 톤 노트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벤더의 자작한 따스함이 묻어와 이상까지 경이로운 비전 메리미 있는 향수다. 75ml 8만2천원, 125ml 11만3천원. **존 바바토스 아티산 아쿠아**, 문의 02-3443-1805 **에디터 이예진**



British inspiration

가장 영국적인 패션 브랜드 버버리의 혁신적인 콘셉트 스토어, '버버리 뷰티 박스'가 아시아 첫 번째 매장을 서울의 코엑스몰에 오픈했다. 메이크업과 향수, 액세서리까지 버버리의 패션과 뷰티를 응축한 이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서는 지금껏 만날 수 없었던 쇼핑 세계가 펼쳐진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한 버버리 뷰티

트렌디코트로 대변되는 영국적인 감성과 클래식한 우아함을 추구하는 패션 브랜드, 버버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버버리의 여성복과 남성복, 가방, 액세서리, 키즈 라인에 이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컬렉션, '버버리 뷰티'가 추가되었다. 역시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 개성을 중시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녹아든 뷰티 라인은 메이크업 제품과 향수로 구현되었다. 매 시즌 선보이는 컬렉션과 동일한 콘셉트를 반영한 뷰티 제품은 버버리 최고 경영자 겸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 크리스토퍼 베일리의 지휘 아래 메이크업 아티스트 컨설턴트, 웬디 르웨가 개발한다. 고집스러운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관여한다고 하니 제품에 대한 완성도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버버리 뷰티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얼굴을 담당하게 하지 않는 편안한, 가벼운 마무리, 편리한 사용감, 영국 정원을 연상케 하는 산뜻한 컬러 구성, 체크 패턴을 담은 케이스로 설명할 수 있다. 버버리를 상징하는 체크 패턴은 네일 래커와 립스틱의 뚜껑, 아이세도 및 립스틱 질감에 양각 처리해 고급스럽게 표현되었다. 얼굴에 자연스러운 빛을 더하는 '프레스시 글로우 루미너스 플루이드 베이스', 자연스러운 커버력이 특징인 '프레스시 글로우 아이브로우 디파이너'는 버버리 뷰티의 베스트셀러다. 립스틱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화려함이나 지나친 메이크업보다는 자신의 얼굴과 피부가 지닌 매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이탬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아이세도와 블러셔에 담긴 은은한 컬러 스펙트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손끝에 느껴지는 섬세한 텍스처, 립스틱과 립글로스의 촉감은 소재와 질감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른 패션 하우스에서 만든 코즈메틱이다. 한편 최근에 론칭한 향수, 마이 버버리는 버버리 하우스의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 버버리 트렌디 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보틀, 잉글랜드산 개버딘으로 만든 리본, 소뿔 소재의 고급스러운 캡 등 견고한 형태로 완성되어 버버리를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제품으로 꼽힌다.

런던에 이은 전 세계 두 번째 버버리 뷰티 박스

버버리 뷰티의 대대적인 론칭에 이어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소식은 버버리 뷰티와 패션이 어우러진 새로운 콘셉트 스토어, '버버리 뷰티 박스'를 서울에 오픈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런던의 코넬트 가든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뷰티 박스 매장이기에 의미를 더한다. 메이크업 제품으로는 아이, 립, 페이스, 네일, 홀리데이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등 메이크업 제품과 남성용 여성용 향수를 구성했고, 선글라스와 스카프, 오직 뷰티 박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파우치와 가죽 제품 등 패션 아이템을 만나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구입한 제품에 어울리는 포장을 선택할 수 있는 '뷰티 박스 바', 메이크업, 향수, 액세서리 등 나에게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뷰티 스타일링', 피부, 눈, 입술을 바꿔주는 '뷰티 리프레시', 나에게 어울리는 향을 찾을 수 있는 '향수 맞춤형 서비스' 등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콘셉트'답게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눈에 띈다. 한발 앞서 디지털 마케팅을 펼친 버버리에서 이 새로운 스토어 역시 혁신적인 형태를 도입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것. 디지털 립 & 네일 바는 버버리 립스틱과 네일 래커를 실제로 발랐을 때의 느낌을 디지털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또 벽면에 설치한 스크린을 통해 '마이 버버리' 향수의 향과 장인 정신, 캠페인 등이 눈앞에 펼쳐져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다. 오직 이곳에서만 홀리데이 시즌을 위한 선물 캠페인, 페스티벌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며, 90ml 용량의 마이 버버리 향수를 구매하면 영문 아니셜을 새겨주는 모노그래밍 서비스도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버버리 패션의 세련된 DNA와 혁신성, 색다른 형태로 콘셉트 스토어의 세 장을 열 버버리 뷰티 박스는 삼성동 코엑스몰에 자리 잡고 있다. 문의 02-6002-3201 **에디터 이예진**



1 서울 코엑스몰에 전 세계 두 번째 버버리 뷰티 박스가 오픈했다. 2 과장되지 않은 깨끗한 피부와 입술을 포인트로 한 버버리 뷰티 비주얼. 3 최근 론칭한 향수, 마이 버버리. 4, 5 체크 패턴을 양각 처리한 질감과 패키지가 고급스럽다.



Icons connected

우아한 프렌치 시크를 대변하는 프랑스 럭셔리 액세서리 브랜드 '로저 비비에(Roger Vivier)'. 지난 11월, 수많은 패션 아이콘을 창출한 천재 디자이너 로저 비비에의 발자취를 재조명한 <로저 비비에-아이콘스 컬렉션> 전시를 보기 위해 서울 화동에 위치한 송원아트센터에 다녀왔다.

절제된 화려함이 가득한 로저 비비에의 세계

구두를 빼놓고 여자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구두 한 켤레는 때론 여자의 인생을 바꿀 만큼 매력적인 무기다. 아이코닉한 구두 디자이너 로저 비비에에게도 여성 슈즈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특별한 존재이자, 그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린 전설의 아이템이다. 크리스찬 디올, 코코 샤넬, 위베르 드 지방스와 동시대를 함께 보낸 로저 비비에에는 그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시크너치 디자인을 담은 구두를 제작해 여성들을 더욱 자유롭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든 주인공, 패션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미모나 크롬 버클 펌프스와 흰 돛 우아한 곡선을 이루는 하이힐은 모두 천재 디자이너인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이런 그의 이념과 우아한 발자취를 담은 순회 전시 <로저 비비에-아이콘스 컬렉션>가 지난 11월, 고즈넉한 종로구 화동 골목에 자리 잡은 송원아트센터에서 열흘간 개최되었다. 2개 층과 12개의 테마로 나누어진 전시 공간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로저 비비에의 절제된 우아함과 모던함을 상징하듯 심세하고 감각적으로 재탄생해 있었다. 아이코닉한 버클 장식을 연상케 하는 12개의 쇼케이스에는 역사 속 유명 인사를 상징하는 빈티지 아이템과 셀러브리티들의 사진, 로저 비비에의 히스토리를 담고 그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1967년 영화 <세브리노>의 여주인공 카트린느 드뇌브의 발을 아름답게 장식한 로저 비비에의 버클 로퍼부터 1963년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위해 디자인한 낮은 힐의 블랙 새틴 펌프스, 그리고 2003년부터 로저 비비에의 두류 이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브루노 프라스나가 발전시킨 아이코닉한 제품들까지, 시대별로 제작한 슈즈와 가방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3D 증강현실 구현 시스템을 통해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없는 아이코닉 슈즈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 전시장 곳곳에 흑백 드로잉 형태로 제작한 QR코

드를 배치해, 이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가상 세계에 온 듯 작품을 한층 더 특별하고 실감 나게 관람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의미의 전시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번 전시에서는 유서 깊은 로저 비비에 매종의 역사를 비롯해, 과거 로저 비비에가 부유층을 위한 구두 브랜드로 시작해 세련되고 현대적인 파리 스타일을 담은 럭셔리 액세서리 브랜드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기까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이번 전시는 서울을 기점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여정을 시작했다. 비록 한국에서는 이제 전시를 볼 수 없지만 로저 비비에의 아름다운 액세서리 컬렉션을 감상하고 싶다면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을 방문하면 될 것. 문의 02-3448-8198 에디터 권유진

1, 2 <로저 비비에-아이콘스 컬렉션> 전시에서는 미스 비브 백 컬렉션을 포함해 다양한 시대별 슈즈와 가방을 만날 수 있었다. 3 로저 비비에 2014 F/W 액세서리 컬렉션. 4 로저 비비에의 홍보대사인 이네스 드 라 프레스주와 로저 비비에의 액세서리를 감각적으로 매치한 모델 김성희.



Romantic Holiday
목선을 타고 흐르는 'Love' 모티브의 네크리스와 모던한 디자인의 원형 네크리스, 가벼운 손목을 강조해줄 반짝이는 크리스탈 밴드는 그녀를 유난히도 사랑스럽게 만드는 키프아이템이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던한 원형 모티브 펜던트 크리스탈을 파헤쳐 세련한 스톤 펜던트 18만5천원, 세 줄의 밴드 링을 안팎으로 매치해 우아한 곡선을 다한 스텔라 미니 링 21만5천원, 심플한 라인이 돋보이는 레이 링 8만9천원, 스톤 펜던트 네크리스와 함께 매치하면 더욱 매력적인 스톤 이어링 21만5천원, 모던하고 심플한 메달 밴드에 크리스탈로 포인트를 준 탁력 밴드 21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Trouser chic

남성복에 구축되어 있던 트라우저 슈트는 여성의 지위 신장과 함께 발전되어왔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2014 F/W 컬렉션을 통해 구조적인 힙과 부드러운 실루엣, 회색빛으로 물든 트라우저 슈트로 모던 테일러링의 정수를 보여준다.

극대화된 볼륨과 커팅으로 완성된 2014 F/W 컬렉션

사블의 트위드 재킷, 질 센터의 화이트 셔츠, 팬티의 모피 코트, 디올의 바 재킷. 패션 하우스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시크너치 아이템은 브랜드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이끄는 상징과도 같다. 이런 의미에서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트라우저 슈트(팬츠 슈트)'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남성복에 도입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모던한 발전을 꾀하고 있으니 말이다. 단지 컬렉션의 양념처럼 등장하는 매니시한 슈트가 아니라 쇼의 전부라고 일컬을 만큼 막강한 역할을 한다. 남성복의 구조적인 힙과 여성복의 부드러움을 모두 갖춘 한편 여성의 체형에 맞는 실루엣은 정확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클래식 테일러링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실루엣과 디테일에 변화를 주는 식인데, 이번 2014 F/W 시즌엔 더욱 극대화된 볼륨과 커팅으로 과감한 시도를 했다. 새로워진 트라우저 슈트를 본다면 실루엣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재킷은 작고 동그스름한 어깨 라인에서 시작해 가려진 손목을 부각하는 소매로 떨어지고, 비대칭 형태의 토르스 라인으로 마

무리된다. 재킷과 매치한 폭이 여유로운 트라우저는 복사뼈가 보일 정도의 길이에서 과감하게 잘라 대비의 균형을 추구했다. 여기에 레이스업 슈즈나 T 스트랩 펌프스, 더 과감하게는 앵글부츠를 매치해 가장 세련된 방식의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중심이 되는 컬러는 회색이고,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밝은 라임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했다. 여기에 면이나 양모를 섞어 만든 가벼운 천을 일컫는 플란넬(fannel) 소재를 적용했는데, 마치 필처럼 부드럽게 다루어 이브닝 웨어의 정교한 자수 장식으로 쓰일 만큼 섬세하다. 그래서인지 몸에 착 감기면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강조되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단 몇 밀리미터 차이로 모던함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완벽주의자다. "나는 변함없이 트라우저 슈트를 사랑할 것이다. 이 디자인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오늘날의 여성은 재킷과 트라우저를 입고 있더라도 스스로 여성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부츠를 매치했다. 반전아이템으로 동시대적인 스타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에디터 이예진



1 2014 F/W 조르지오 아르마니 컬렉션에 등장한 회색 트라우저 슈트, 부드러운 어깨 라인과 슬림한 소매의 재킷에 복사뼈까지 오는 넉넉한 팬츠를 매치했다. 2 회색 키프아이템으로 사용된 이번 시즌 광고 비주얼. 몰리넬 소자(가 유연한 실루엣을 만든다). 3 소를 위한 스케치. 밝은 라임 컬러 재킷과 레이스업 부츠를 포인트로 사용했다.

Perfect gift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싶은 순간,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뮤즈인 배우 한예슬이 제안하는 '스와로브스키 홀리데이 컬렉션'을 눈여겨보자. 화려하면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주얼리 레이어링은 시선을 땔 수 없을 만큼 당신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펜던트부터 브로치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베스트 브로치 24만원, 크리스탈과 진주를 번갈아 두 가지 스타일로 착용할 수 있는 퍼펙트업 이어링 15만5천원, 심플한 골드 크리스탈 비토레 링 11만원, 별을 수놓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화이트 & 골드 스타 더블 브레이슬릿 각 14만5천원, 진주를 감싸듯 크리스탈을 파헤쳐 세련함을 극대화한 누드 네크리스 33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에디터 권유진



Party Chic

우아한 진주와 화려한 크리스탈의 만남은 파티의 스포트라이트만큼이나 극적이다. 볼드한 진주 네크리스로 포인트를 주었다면, 심플한 레이어링, 은은한 빛의 브레이슬릿과 진주 이어링으로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성해볼 것.



here for Good

'1백 세 시대의 자산 관리는 우리네 삶의 만족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히어 포 굿(Here for Good)'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자산 관리 서비스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글로벌한 시각으로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월가의 평가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구하려면 먼저 자산 관리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미국의 투자 전략가 밥 프뢰리히 박사는 2006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자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한 자신의 저서를 끝맺으면서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당사 전문가를 만나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이 나온 뒤 2년 뒤 발발한 2008년의 금융 위기를 예측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의견만 참고해 투자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인구 동향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동 추이를 지켜보고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의견만큼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조언이다. 1백 세 시대를 맞아 제대로 된 장기적인 재무 설계를 하려면 '뻥찼던' 자산 관리 전문가를 곁에 뒀어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프뢰리히 박사가 주장했듯이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다. 자산 관리의 철학이나 성향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말을 무조건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을 맡기기에 불안할 테고, 결국 전전긍긍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넓게 보자면 자산 관리도 나 자신이 우선시하는 삶의 가치와 맥을 같이하는 서비스를 찾는 '궁합'이란 게 있지 않을까. 요즘 '개인의 삶까지 신경 써드립니다'라고 강조하는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가 심심찮게 보이는 건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을 듯 하다. 만약 좀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싶다면 이런 점에서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한 상품 선정, 기존의 프라이빗 बैं킹과 무엇이 다를까
SC은행은 흔히 알려진 '프라이빗 बैं킹(PB)'과는 차별된 자산 관리 서비스를 표방하는 '웰스 매니지먼트(WM)'를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많은 금융회사가 계열사 내의 보험이나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데 반해 글로벌 리서치 팀의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금융 상품을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선정하는 점을 경쟁 우위로 내세운다. 이는 미국, 영국 같은 금융 선진국들이 바라보는 WM의 개념을 1백50여 년에 걸쳐 쌓아온 SC은행만의 글로벌 노하우를 한국 시장의 특색에 맞게 융합적으로 적용한 서비스다. 그 기저에는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SC그룹 글로벌 리서치 팀이 버티고 있다. 금융, 경제 전문가가 한데 모여 있는 이 팀은 시장 분석과 투자 전망 리포트를 발간해 세계 70여 개국에 위치한 WM 고객들에게 발

빠르게 제공한다. 그러면 한국 SC은행의 상품 팀과 투자 자문 팀은 전 세계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로 연결된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의 추천을 적용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상품을 선정한다. SC은행 관계자는 "자산 관리 서비스가 금융 기업의 핵심 명제가 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글로벌한 가치가 요구되는 추세다. SC은행은 이러한 가치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70여 개 네트워크를 보유한 진정한 글로벌 은행
그렇다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린 서비스의 장점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예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이 한국을 직접 찾아 한 해의 투자 전망을 제공하는 '인터내셔널 웰스 포럼(International Wealth Forum: IWF)'을 꼽을 수 있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적 자산 관리 포럼으로, 올해는 4월과 5월, 11월에 진행됐다. 또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 위안화를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SC은행이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다. 고객이 중국 시장과 위안화 투자에 관한 최신 전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해마다 서울에서 'RMB 서밋(The Renminbi Summit)'을 개최하고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자산 관리라는 영역 역시 결정도 책임도 모두 자신의 몫이다. 다만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인 만큼 조언자가 분명 필요하고, 그런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은 평생의 행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자산의 가치와 책임을 차세대에 전달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
자산 관리의 진정한 도우미로서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 삶의 만족도까지 높여주는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 SC은행의 브랜드 가치는 3편의 광고 영상을 통해서도 표현됐다. 성공한 사람의 진정한 행복(achiever),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generation), 혁신적인 전문가(innovator)의 3편으로 나누어진 광고 시리즈다. 무형의 자산 관리 서비스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성공을 가족과 공유하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파트너십이 필요한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파트너십에 관심이 있다면 SC은행이라는 브랜드의 행보를 주목해볼 법하다. 문의 1588-1599(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산 관리 서비스)

editor's Pick

첨단 테크놀로지를 담은 세럼과 아이크림, 빛나는 입술을 위한 립 제품 등 2014년을 마무리하는 <스타일 조선포> 기자들의 선택.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랭콤 **어드밴스드 제네피크** 증안 세럼, 틴렉 세럼으로 생세이(세균학)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 꾸준히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에센스의 명성을 지켜온 제네피크. 로레알 그룹을 대표하는 9개의 특수가 담겨 있어 즉각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가격까지 합리적이다. 30ml 11만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배미진*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궁중 블러셔 외국인들에게는 기쁨으로 선물해도 손색없음,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궁중 블러셔. 백제의 아름다움 유물, 국보 제155호 무령왕비 금제관상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화려한 연꽃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고 네 가지 진주 펄의 컬러가 자연스럽게 발색되는 블러셔도 고급스럽다. 12g 14만원.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배미진*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듀얼 인퓨전 고구려 블랙 트러플을 담은 에스티 로더의 럭셔리 세럼. 강력한 효능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2개의 병에 분리된 텍스처는 평평을 하면 하나로 합쳐져 유효 성분을 가장 효과적인 상태로 피부에 전달할 수 있다. 텍스처가 부드럽고 사용감이 편안하다는 것도 장점. 리-뉴트리브의 매력을 알고 있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25ml 52만원. *by 에디터 배미진*

SK-II 마그네틱 아이케어 워너 스템퍼워 라인에 스킨을 보낸다면 세럼에 업그레이드된 아이크림에 대한 기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마그네틱도 업그레이드되었지만, 무엇보다 마그네틱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 좀 귀찮긴 하지만 냉동고 넣어두고 아침에 깨서 아이크림을 흡수시키고 난 후 눈가를 지압하면, 부기가 놀랍도록 빨리 가라앉는다. 다른 아이크림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15g, 14만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이재진*

셀화수 소노보크림 출시 이후 지금까지 네 번 이상 사용한, 최고의 만족도를 선사하는 제품. 자외선과 열 차단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화장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다용도다. 끈적임 없는 제형과 촉촉함은 꾸준히 사용하는 데 이 크림으로 최고라 평가하고 싶다. 용량이 넉넉한 100ml 주름 개선 기능성 효과까지 담고 있다. 50ml 15만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배미진*

오리진 레고 리프트 오후만 되면 신발이 안 맞을 만큼 종아리와 발이 통통 부는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크림. 특히 장시간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면 더욱 눈여겨보라. 에브리콜 사이프로스와 바질 성분이 지친 다리를 시원하게 풀어주며 부기를 빠르게 완화한다. 스티킹 위에도 바를 수 있으니 겨울철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150ml 3217천원. 문의 02-3440-2783. *by 에디터 권유진*

오일 엑스트라 바진 울리브유 샴푸를 만들 때나, 오일 풀링을 할 때 항상 사용하는 100% 엑스트라 바진 울리브유. 청정 지역 토스카나에서 씨앗부터 재배, 원료 추출, 오일 제품 제조까지 철저하게 오일만을 고집해 만든 오일로, 까다로운 유7농심사 기관인 ICEA의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오일 풀링을 할 때는 최고급 오일을 사용해야 효과가 좋다는 사실, 다양한 오일을 써왔지만 정말 이만한 제품이 없다. 250ml 4만6천원. 문의 02-517-5515. *by 에디터 권유진*

다올 아र्ट 리프 글로우 004 코렐 다올의 베스트셀러 아티스틱 리프 글로우의 코렐 컬러 버전. 개인적으로 수년 전 사용해온 랩의 신제품이기에 더욱 반갑다. 기존 제품이 입술의 핑크빛을 자연스럽게 살려준다면, 리프 글로우 코렐은 생기가 있는 오렌지색 입술을 싹틔고 생기가 있게 물들인다. 3.5g 3만9천원. 문의 02-3438-9546. *by 에디터 권유진*

바이레도 블랑슈 리프 퍼뮌 깨끗한 바늘 한침순한 향이 매력적인 바이레도 블랑슈의 립은 타입 향수. 피부처럼 속 들어가는 핸드메이드로 수시로 손목이 나긋하게 문질러주면 하면 되니, 언제 어디서나 프레스한 향을 즐길 수 있다. 7.5ml 122천원. 문의 02-3440-3948. *by 에디터 권유진*

톨 프루드 립 컬러 블러딩 골드 프루드의 입술도 입술이 깨끗하게 관리될 때 톨 프루드의 DNA를 담은 립스틱이다. 상쾌한, 꽃향기 느낌의 핑크색이다. 노란 기가 되는 에디터의 피부에 의외로 잘 어울려 계속 손이 간다. 핸드백에서 꺼내 바를 때도 '폴' 주는 듯하고, 텍스처 위에 세가지 'TF'조차 맛있게 느껴진다. 입술 상태가 좋을 때는 립밤을 바를 필요 없을 정도로 텍스처가 부드럽다. 3g 6만2천원. 문의 02-3440-2760. *by 에디터 이재진*

바비 브라운 스킨케어 더 리프 글로우 아이 팔레트 클러지 백을 흡수해줄 수 있는 팔레트 모던도 멋지지만 프레스 킴에 함께 들어 있는 미니 사이즈 위스키역시 이번 시즌 바비 브라운의 팔레트와 콘셉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주었다. 그윽한 아이 메이크업을 위해 딱 필요한 이름 가지 브라운 톤 색상은 바질 기 하 나도 없을 정도로 오묘하게 쓰러라 단단하다. 18.8g 12만8천원. 문의 02-3440-2781. *by 에디터 이재진*

베레드 베레드 쏟아지는 신상 리프 제품 가운데서도 항상 자리를 지키는 오래된 제품으로, 특히 주말에 빈둥거려 집 앞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서, 뭇 옷 세 번만 입술 인공을 톡톡 두드려도, 자연스럽게 물들어 창백해 보이는 듯하다. 건조하고 느낄 때는 그 위에 베레드를 곁들이면 끝. 12.5ml 4만2천원. 문의 080-001-2363. *by 에디터 이재진*



파르미자니



스와로브스키

SHOWROOM

사벨 화인 주얼리



파르미자니 **론다 메트로그래프** 파르미자니가 론다 메트로그래프의 블랙 다이얼 버전은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다. 독자적인 무브먼트 PF315는 얇은 케이스에 걸맞게 정밀하고 슬림하게 디자인되었으며, 가죽 스트랩과 브레이슬릿 호환이 가능하다. 브레이슬릿 각각의 링크에는 파르미자니 고유의 물방울무늬를 사용했다. 문의 02-310-1737

스와로브스키 **바론 이어링** 스와로브스키에서 연말을 위한 크리스마스 컬렉션, 바론(Baron) 이어링을 선보인다. 나뭇잎 모양을 따라 파베 세팅한 크리스탈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블루 톤을 가미한 클리어 크리스탈의 은은한 반짝임이 매력적이다. 이어링을 비롯해 브레이슬릿, 네크리스를 세트로 매치하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661-9000

사벨 화인 주얼리 **2014 수 르 신느 뒤 라용** 사벨 화인 주얼리 부티크에서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수 르 신느 뒤 라용(Sous le Signe du Lion)' 컬렉션을 전시할 예정이다. 2012년 사벨 화인 주얼리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자는 마드루아젤 사벨만의 상징적 언어의 일부이자 영감의 원천 중 하나로, 사자라는 상징을 바탕으로 영감을 얻은 사벨 개인의 스토리와 긴밀히 연결된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플라타늄과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에 펠, 옐로 사파이어, 시트린, 베릴 등 다양한 보석을 결합해 사벨 하이 주얼리의 창조성과 노하우의 진수를 표현했다. 문의 02-3442-0962

그라프 주얼리 전시회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그라프 신라 서울 살롱에서 주얼리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 특별한 전시회를 위해 1억 1천만달러 가치로 인정받은 보석과 워치 등 60개의 작품이 런던을 떠나 서울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 9월 파리에서 열린 엔티크 비엔날레에 전시된 주얼리와 현 세기에 발굴된 원석 중 두 번째로 큰 원석인 5백50캐럿 레조엔 스타(Letseng Star)에서 태어난 33.11캐럿 D 컬러 FL 페어 세이프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나비 브로치도 아시아 최초로 전시했다. 문의 02-2056-6810

스와치 그룹 **이워 패션 부티크** 국내 오픈 스와치 그룹이 워치 전문 매장, '이워 패션(Hour Passion)'을 롯데월드몰에 새롭게 오픈했다. 스와치 그룹의 다양한 시계 브랜드(론진, 라도, 티쏘, 미도, 해럴드 등)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계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롯데월드몰에 이어 12월 5 일에는 크리스몰에 이워 패션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문의 02-3213-4168

몽블랑 보헬 데이트 오토매틱 몽블랑의 '보헬 데이트 오토매틱'은 꽃 모양 이리비아꽃지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사침과 분침, 그리고 몽블랑 엠블럼으로 장식한 초침으로 둘러싸인 기호세(guilchoe) 문양의 다이얼이 특징이다. 사침, 분침, 초침, 날짜는 시침당 2민8천6백 회 반시동하는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



버 MB 24.14'와 38시간에 달하는 파워 리저브를 보장한다. 반짝이는 톱 웨셀턴 다이아몬드 62개로 장식한 베젤로 둘러싸여 있다. 문의 02-3440-5734

론진 엘레강트 컬렉션 론진에서 엘레강트 컬렉션을 국내 처음 출시한다. 18K 로즈 골드와 스틸 케이스로 이루어진 베젤과 인덱스,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며, 셀프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인 L595를 탑재했다. 25mm부터 34.5mm, 37mm 등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한다. 얼마 전 리뉴얼 오픈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비롯해 영등포점, 경계점, 인천점 등 6개 매장에 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149-9532

티파니 2014 홀리데이 디스플레이 티파니가 연말을 맞아 전 세계 티파니 매장을 홀리데이 디스플레이로 새롭게 단장한다. 올해 티파니 홀리데이 쇼윈도 콘셉트는 1950~60년대 뉴욕의 홀리데이 전경을 담아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록펠러 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티파니 플라자 등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과 커플의 모습을 워트 넘치는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생동감 넘치는 블루와 라벤다 컬러로 이루어진 일러스트에 티파니 블루 바스가 어우러진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티파니 매장에서 1월 5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02-547-9488

JEWEL

BEAUTY

디올 2014 자도르 뉴 캠페인 디올은 샤를리제 테론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2014년 자도르의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다. 장 자크 야노 감독의 지휘 아래 골드의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극대화한 이번 캠페인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화장을 주는 미래로 우리를 안내한다. 실크 드레스를 입고 시선을 거슬러 여행을 떠난 그루는 자도르의 아름다운 여성성을 표현한다. 문의 02-3438-9631



시세이도 마카야쥬 드라마틱 멜팅 루즈 출시 시세이도의 메이크업 라인, 마카야쥬에서 드라마틱 멜팅 루즈를 출시한다. 입술을 코팅해주는 사이니 오일, 밀착력이 높은 리치 오일, 내추럴 로즈 오일, 에센셜 로즈 향료, 보습 성분 등이 함유되어 별도의 립밤이나 립글로스가 필요 없을 정도다. 마카야쥬의 뮤즈인 미즈하라 기요가 비온 메인 컬러인 이노센트 클레머(RD425)를 포함,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오는 11월 28일부터 전국 시세이도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80-564-7700

몽블랑 엔블림 몽블랑의 남성 향수 엔블림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프레스시 루디 아로마틱 향기를 담고 있다. 그레이프 프루츠와 로즈메리의 활기찬 톤 노트로 시작해 카르다뭉과 클라리 세이지, 블랙 페퍼의 미들 노트로 이어져 파파쿨리와 암복색의 진하고 강렬한 베이스 노트로 마무리된다. 눈꽃의 육감적 모양을 연상시키는 둥근 모서리로 이루어진 보틀은 자신감 있는 남성을 상징한다. 문의 080-800-8809

인생로랑 2014 홀리데이 컬렉션 인생로랑의 2014년 홀리데이 컬렉션은 블랙 세틴 텍

존 바비토스 크리스마스 행사 존 바비토스 향수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아티산, 아티산 블랙, 아티산 아이유, 빈티지 등 종류에 상관없이 존 바비토스의 향수를 20만원 이상 구입하면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대형 여행 가방을 증정한다. 시은품으로 제공되는 존 바비토스 여행 가방은 블랙 색상으로, 어깨끈과 손잡이를 모두 포함시켜 실용성을 높였다. 3백 개 한정수량이다. 문의 02-3443-5050

랩시리즈 맥스 LS 에이자-레스 파워 V 리프팅 크림 랩시리즈가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맥스 LS 에이자-레스 파워 V 리프팅 크림을 출시한다. 자연에서 얻은 가수분해 구리 단백질과 천연 콜라겐을 생성하는 유청 단백질, 턴 리닌을 정돈하는 콜레유스 포스폴리 뿌리 추출물 등으로 이루어진 'LS 파워 보이 테크놀로지'가 피부를 재생시킨다. 문의 02-3440-2774



FASHION

셀린노 러기지 백 셀린노가 2014 F/W 시즌을 맞아 파이톤, 송치, 펠트, 라넨 등 다채로운 컬러와 소재로 구성된 러기지 백 시리즈를 선보인다. 러기지 백은 1970년대 셀린노의 빈티지 여행 가방에서 영감을 받아 피비 파일로가 재해석한 셀린노의 아이코닉 백스텔라다. 가방 양쪽의 날개가 펼쳐진 듯 독특한 실루엣은 큰 로고나 장식 없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셀린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문의 02-3440-1147

어그 오스트레일리아 홀리데이 기프트 아이템 어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홀리데이 기프트 아이템을 제안한다. 가장 기본자인 디자인에 리본과 스와로브스키, 스팅글 등으로 장식해 연말의 화려한 느낌을 부각했다. 클래식 부츠는 철저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통해 'Grade A' 트윈 패시브 스킨 처리한 면은 가죽, 한 면은 양털인 이중 오피피언을 사용한다. 가죽 부분은 텍스처가 균일하고 흠집이 없는 소재만 고집해 어그만의 패션향을 전 세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문의 02-3440-4518

구찌 2015 크루즈 여성 컬렉션 구찌의 2015 크루즈 컬렉션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강인한 내면의 이중성에 대한 탐구를 담았다. 캐시미어 드레스는 무릎 길이 라인과 주름 장식 이 특징이며, 트랜치코트, 마린 코트, 이국적 인 스타일의 재킷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소프트 핑크, 로즈 베이지, 시트러스 옐로, 케일 등 부드럽고 따스한 컬러가 주를 이룬다. 문의 02-3444-3169

버버리 페스티브 캠페인 론칭 버버리가 페스티브 캠페인을 론칭했다. 연말연시 선물 아이템을 시를 기념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헤리티지 트랜치코트부터 캐시미어 스카프, 남성 태일링 러틀 등, 여성 이브링 웨어까지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 런던에서 진행되는 LOVE라는 주제로 로미오 베컴과 함께 한 캠페인 영상을 통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엿볼 수 있다. 문의 02-3485-6583

루이 비통 라 파브리크 뒤 텡 개관 루이 비통이 스위스에 위치한 시계 공장, 라 파브리크 뒤 텡(La Fabrique du Temps)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개관식을 계기로 스위스 내 흩어져 있던 공방을 재배치에 한데 모아 시계 제조 역사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약 4000㎡의 공간에서는 엔지니어를 비롯한 디자이너, 시계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문의 02-3441-6478

몬테코레 롯데백화점 본점 팝업 스토어 이탈리아 프리미엄 아우터 브랜드 '몬테코레(Montecore)'가 롯데백화점 본점 5층에 팝업 스토어를 연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테일러링 방식에 최첨단 스포츠웨어 기능을 담아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 특징이다.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파비오 페로니(Fabio Peroni)는 빈티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서 영감을 얻은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한다.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76-7623

아이그너 지오이아 독일 브랜드 아이그너(AIGNER)에서 클래식한 디자인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백, 지오이아(Gioia)를 출시한다. 가방 전면을 패딩 처리해 인체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며, 이중 스타치와 견고한 마무리로 완성도를 높였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디자인에 골드 컬러 자물쇠로 포인트를 더했다. 문의 02-759-0554

LIFESTYLE



캐논 파워샷 N2 캐논이 파워샷 N2를 제안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셀프 카메라 문화의 흐름을 적극 반영해 셀프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콤팩트 카메라다. 약 1천6백10만 화소의 고감도 CMOS 센서에 다지 6DIGIC 6를 탑재해 파워샷 N에 비해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또 광학 8배 줌에 줌러스 16배 줌을 지원해 멀리 있는 피사체를 보다 쉽게 촬영할 수 있다. 문의 1588-8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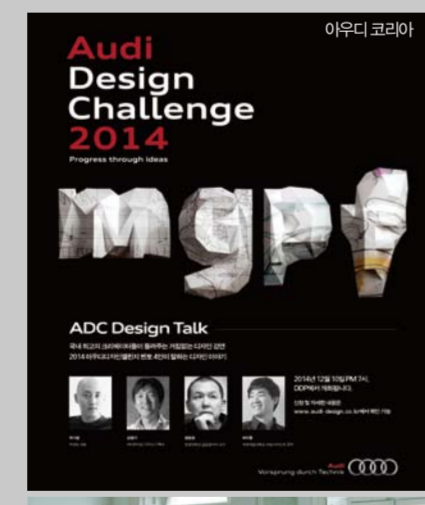
이우디 코리아 2014 이우디 디자인 토크 이우디 코리아는 이우디 브랜드와 협력하에 담긴 창작 디자인 공모전인 '2014 이우디 디자인 챌린지'의 수상작 전시와 함께, 12월 10일 본선 진출자들의 멘토를 담당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디자인 스토리를 듣는 자리인 '이우디 디자인 토크'를 DDP 알함라 1관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이우디 디자인 챌린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audi-design.co.kr

클림메드 발리 리조트 맥 오픈 클림메드 발리에 서 프리미엄 레스토랑, 텍(TECK)을 오픈했다. 올해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진행 중인 발리 리조트는 지난 3월 상인용 풀장 Zen Pool을 오픈한 데 이어 이달 초 클림메드 해방 리조트 최초의 고품격 식음 공간인 오메이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겨울휴가 BIG BONUS 3 프로모션을 통해 발리 리조트 에어 패키지를 성인 최저 1백41만원대(3박 기준)부터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3452-0123

인피니 바이 스프링 매그니피센스 인피니가 최고급 영국 침대 브랜드 바이 스프링을 신라 호텔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소개한다. 12월 16일 당 하루 동안 열릴 팝업 스토어에서는 매그니피센스(Magnificence)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매그니피센스는 영국 왕실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 직계 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침대로, 2011년 세계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왕립 연왕자 케이트 미들턴이 선택한 브랜드이기도 하다. 문의 02-3447-6000

용평 리조트 버치힐 테라스 레지던스 용평 리조트 프리미엄 브랜드, 버치힐 테라스 레지던스는 공간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신개념 레지던스다. 계단식 연계를 따라 전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알뜰한 발왕산부터 가파른 골짜기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풍광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66평부터 1백 평대까지 각기 다른 인테리어로 꾸민 다양한 크기와 공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270-1260



이우디 코리아
Audi Design Challenge 2014
Progress through ideas
ADC Design Talk
이우디 코리아는 2014년 12월 10일 DDP 알함라 1관에서 '이우디 디자인 챌린지'의 수상작 전시와 함께, 12월 10일 본선 진출자들의 멘토를 담당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디자인 스토리를 듣는 자리인 '이우디 디자인 토크'를 DDP 알함라 1관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이우디 디자인 챌린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audi-design.co.kr



클림메드
용평 리조트

